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5일)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우리 동네 장은 종로 장금이가 우리의 전통 장문화를 전수하는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의 전문노인자원 봉사단 종로&장금이 봉사단이 3월 11일 종로노인복지관 5층 장카페, 장마당에서 장독분양사업 '우리동네 장 담그는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장 정관 스님과 특강을 진행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전문가 동원 스님, 지역주민 등 2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장을 담갔다. 행사는 4월 28일 '장독분양사업 II –우리동네 장 가르는 날(된장, 간장 분리하기)', 11월 '장독분양사업III–장독 비우기'로 이어질 예정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비구니 '복지 · 교육' 확대 나선다

전국비구니회, 3월 9일 종무회의서 결의

6천여 스님 조사 결과 공유
요양 · 주거 복지 요구 높아
'공동체' 통한 해법 요구해
시설 확충 · 신설 본격 추진
포교 · 교육 소임 부서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비구니회가 전수조사를 토대로 올해 비구니복지 확대를 위한 승가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요구에 대한 실무부서를 정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에 착수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9일 제14차 종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 및 감사결과 공유에 이어 올해 사업계획 및 주요일정을 논의, 확정했다.

설문지 의견 수렴결과 실행의 건은 전국비구니회가 지난해 말 비구니 스님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의 후속안건으로 주목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들은 특히 비구니 복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노후와 요양,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요양복지를 선택한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복지가 18.3%, 주거복지가 15.5%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구니 승가공동체에 대한 요구다. 비구니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승가공동체를 답한 스님이 상당수였으며, 기타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승가공동체를 언급한 스님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와 관련 "비구니스님들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1, 2곳 승가공동체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지회의 협조를 받아 독거 노스님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공동체 시설 확충 및 신설에 대한 계획 수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존 사찰을 중심으로 공동체 신청을 받아 현실에 맞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규칙, 청규, 시설보완비용 등을 제공하고 대중을 모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동체 신설을 위한 자금 및 공동체 시설 보완 기금 마련, 공동체와 요양시설간 결연 및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본각 스님은 "복지와 수행환경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승가공동체 실현이 중요하다는 공의를 모아 현재 비구니청규 및 운영규칙, 환경조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본틀이 확정된다면 점차적인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기 중 서너곳이라도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소임자 스님들부터 모두가 공의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국비구니회는 상반기 중 총무부 주도로 청규나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하반기 무렵 이를 공유해 승가공동체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찰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구니스님들은 지역별 · 영역별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도 높았다. 비구니스님들이 특히 선호하는 포교분야는 명상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담이 13.5%, 복지 11.0%, 학생포교 9.2%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표출됐다. 명상(다양한 수행법, 수행 지도방법), 상담심리, 사찰경영, 호스피스, 인성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국비구니회는 교육부 주도로 현재 진행중인 CPE 교육과 연계해 전법단 활용 및 전문교육 실행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방 교육의 확대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포교 활성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문화포교부 주도로 운영위원회 산하 지회와 연계해 각 포교 노하우 공유 및 강연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사찰 내 소임자 등 인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소임플랫폼(기획부 · 총무부), 상담창구 개설(사회복지부 · 총무부), 기존선원의 상설개방 비구니 수행처 활용방안(기획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회원스님과의 소통을 위해 매월 1회 웹소식지 발송(문화포교부 · 총무부)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종무회의에서는 올해 첫 총회 일정을 3월 29일 오후 1시 개최키로 했으며, 원로회의 일정은 4월 중 집행부 위임으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21년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공로자 발굴 및 문화행사를 위한 준비, 회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회관 건립 20주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사업부 주도로 각종 돌봄 사업 및 복지 관련 사업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결의했다.

강남서 걷기 명상하며 코로나19 극복 해볼까

참선지도자協 · 명상총협회 · 강남구청 공동으로

4월 9~11일 강남구 일원에서
명상 포럼 · 양재천 걷기 대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 스님)와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 스님)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과 손잡고 4월 9~11일 3일간 강남구민회관과 양재천 일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명상포럼 및 명상대강연과 양재천 걷기 명상 대축전'을 펼친다.

이어 한국명상총협회 회장 각산 스님(참불선원장)은 "2년 전 동국대서 제1회 명상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동국대 인근인 남산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무려 5천 명이 참여했다"며 "올해는 힐링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청의 후원으로 강남 양재천서 걷기 명상 대회를 마련한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 주최측인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인원이 많은 만큼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를 원만히 치르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첫째날(4월 9일)에는 다양한 주제의 명상 강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국 대표적 선승인 정찬 스님(前 전국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 MBSR 안희영 연구소장의 '내가 경험한 서구의 마음챙김 명상' (오후 1시) △해남 미황사 주지를 역임한 금강 스님의 '선명상 수행법의 길잡이/선가귀감' (오후 2시)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춤추는 인생! 아름답다! 잠깐 멈춤' (오후 4시) △행불 선원장 월호 스님의 '생로병사 해탈법'을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각산 스님 진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둘째날(4월 10일)에는 강연 이외에 걷기명상 행사가 마련된다. 오전 10시부터 양재천 특설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 국민의사인 이시형 박사와 간화선 박사 학위자인 천주교 신부 베르나르 신부(서명원), 주최자인 각산 스님의 명상대강연이 열린다.

명상대강연 후에는 각산 스님의 지도로 약 1시간 정도 양재천 걷기명상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명상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자리를 강남구민회관으로 옮겨 △베르나르 신부의 '참선속의 행복명상법' △이시형 박사의 '베르나르 신부의 수양과 명상' △구영선(삼성 수석엔지니어 명상가) 씨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명상' △정과 스님(수좌회 선승)의 '왜 수행하는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4월 1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강남구민회관서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참선명상 세미나가 개최된다. 각산 스님의 진행으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초기경전에 입각한 깨달음의 발제와 함께 선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정과 스님, 백성호 중앙일보 기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참석자는 대한민국명상포럼(02-451-0203)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 원, 단 양재천 걷기명상은 무료다. **김주일 기자**

봉축표어 "희망 ·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봉축위원회, 공모서 선정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에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Light the Lantern of Hope and Healing)"가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불기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450건 표어 중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봉축위에 따르면 올해 봉축표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정됐다.

봉축위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는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아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겠다"며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발원한다. 모두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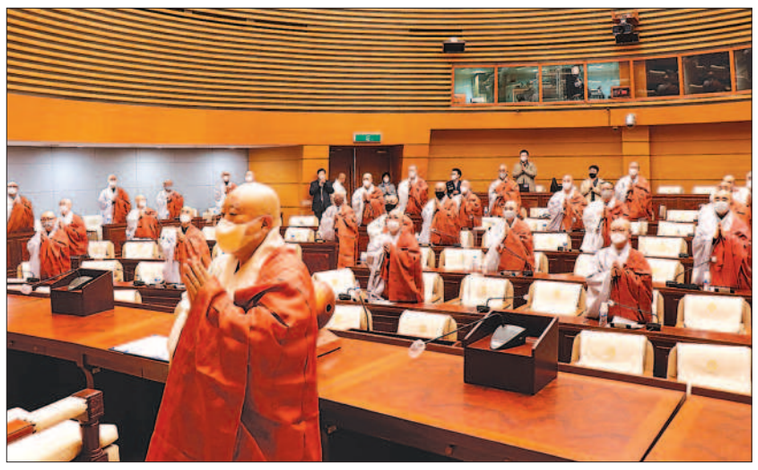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조계종, '선암사'논란 강경대응 나선다

특별법 제정 · 교구불사 결의 잇따라

조계종, 3월 9일 특별법 입법예고
선암사 제20교구 지위 회복 골자
주지 겸직 · 본사 중복 취적 가능
3월 10일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
원행스님, '단결된 불교의 힘' 강조


조계종은 3월 10일 진행된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선암사 문제를 공유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법원 판결로 조계종 · 태고종 간 소유권 논란의 중심에 선 순천 선암사와 관련, 조계종이 선암사의 제20교구본사로서의 지위 회복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선암사 문제를 보고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범종단적 차원에서 움직임을 본격화해 주목된다.

조계종은 3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조계종 선암사'에 권원 없는 '태고종 선암사'가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에 대해 정상화를 이뤄 정화정신을 회복하고 한국불교 전통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지위회복과 교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선암사는 제20교구본사의 지위로 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며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사업 △선암사의 포교와 교육, 문화, 복지, 홍보사업 △선암사 신도조직 및 관리 △선암사 재산관리 △기타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교구본사로서의 지위는 회복하되 정상화 특별법인 만큼 일반적인 교구본사 행정과도 차이를 둔다. 주지는 산중총회 없이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종무원법 제7조 겸직금지 원칙의 예외로 둔다. 교구 재적승 역시 다른 재적교구와 중복으로 취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최고 심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두며, 관리정상화를 위해 정화결사단과 산하 재가호법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화결사단은 선암사 주지가 교구 재적승을 중심으로 구성, 조직되며 정화결사단장은 주지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3월 10일 진행된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 보고에 이어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 구성 경과'와 '선암사 교구본사 재지정 및 정상화 특별법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선암사와 관련된 대법원의 충격적인 판결로 한국불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법이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집행부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확고하고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불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36대 총무원이 출범한 지 3년을 맞아 안팎으로 힘든 현실에서도 종단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협조와 후원 속에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불교는 위기를 강한 응집력을 통해 극복해 온 만큼, 코로나19의 위협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결된 불교의 힘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 미래 위한 신행혁신, 계속되길"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 3월 11일 퇴임

지역 전법 확산 과제 제시
초심돌아가 도심포교 매진
원행 스님 "아름다운 회향"



신행 혁신을 기치로 수행하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문화 정착을 이끌어 온 조계종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임기를 회향했다. 3월 11일 퇴임식이 열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는 불교 각계 포교현장가들이 모여 스님의 회향을 축하하며 5년간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발전을 다짐했다.〈사진〉

퇴임식은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발자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의 송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퇴임사 및 별빛사리 중창단의 송가 등으로 이어졌다.

지홍 스님은 이날 퇴임사에서 "지금 이 자리의 분들은 수십년간 포교현장에서 헌신해 온 참 일꾼들"이라며 "사부대중이 이분들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우리 종단의 포교가 살아난다. 더욱 힘을 내어 전법 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기 포교원에 대해 7대 포교원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

지홍 스님은 이제 광명 금강정사에서 도심포교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지홍 스님은 "저는 50여년 전 출가시절 초심으로 돌아간다. 은사 스님 지도아래 도심포교운동을 시작하고, 1994년 종단개혁을 전후해 중앙종단 여러소임을 맡아 쉼없이 달려왔다"며 "수행자로서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원력으로 살아왔지만 부족한 것도 많았고, 수행의 길에 굴곡도 있었다. 포교원장이라는 중책을 내려놓고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축원하고 기도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퇴임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5년간 포교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경험을 갖고 정성을 다해 이끌어 준 지홍 스님에게 감사하다.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치사를 전했다.

이날 퇴임식 현장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함께 활동한 종무원들과 수많은 신도들의 감사선물 전달을 비롯해 "온화하고 따스한 미소처럼 연꽃길만 걸으세요" 등의 스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법화종 총무원장 자격논란, 3월 중 판가름

대전지방법원, 3월 9일 심리종결
서안스님 · 지성스님 각각 소제기
전과 · 이중승적 · 선거 절차 쟁점
재판부 "유예 끝나도 전과 존재"

법화종 혼란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2건의 당선 무효 ·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의 법원 심리가 종결됐다. 따라서 이르면 3월 중 총무원장 당선인의 자격 및 선거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은 3월 9일 중앙종회의원 서안 스님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그리고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성 스님이 제기한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잇따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안 스님이 제기한 소와 관련 3월 23일까지 거암 스님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 명령하는 것으로 두건 모두 심리를 종결했다.

이번 가처분의 공통 쟁점 사안은 △전과기록의 실효성 여부 △이중승적으로 인한 제적 △선거 직전 구성된 3개 교구의 종회의원 자격 등 선거 절차상 문제 등이다. 지성 스님의 경우 이에 추가로 자신의 분한신고 및 분담금 미납을 문제삼아 후보자격을 박탈한데 대한 부당성 확인과 거암 스님의 법납에 대한 확인을 청구했다.

재판을 참관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리에서 '거암 스님의 전과로 인한 부적격' 문제와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전과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고 거암 스님측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과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종법상 전과 기록이 총무원장 부적격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화종은 종법상 금고 이상 집행유예 전과자에 대해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는 전과 사실이 실효(失效)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도 전과가 있으면 임명이 원천무효가 되는데, 하물며 법화종 총무원장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 · 논리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안 스님이 선거절차상 위법사유로 지적한 통영 · 안정사 · 진주교구 종회구성 및 선거인단인 교구 종회의원 선출 과정에 관련, 거암 스님 측에 3월 23일까지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소명자료는 종법상 50개 사암을 전제로 교구 종회의원 1인을 선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급조 논란이 있는 3개 교구 내 50개 사암의 존재 등 적법성 여부, 그리고 해당 교구 종회의원의 적법성을 소명하라"는 취지다.

한편 재판부가 추가 심문 없이 심리를 종결함에 따라, 거암 스님의 총무원장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르면 3월 중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무원장 자격 논란으로 선거 후 더욱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법화종이,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기후위기 극복대안 모색 나선다

환경위원회, 3월 11일 회의서
'대응소위원회' TF팀 구성키로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조계종이 나선다. 조계종은 향후 '기후위기대응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적 의제 마련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종단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을 출범하는 것은 조계종이 처음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는 3월 11일 온라인으로 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위원회 산하에 '기후위기 대응소위원회'를 출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등 각종 기후재난의 심각성이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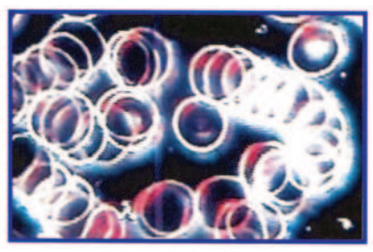
환경위원장 무관 스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것이 아니다'는데 공감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을 가동키로 했다. TF팀은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기후위기대응소위원회의 활동과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를 맡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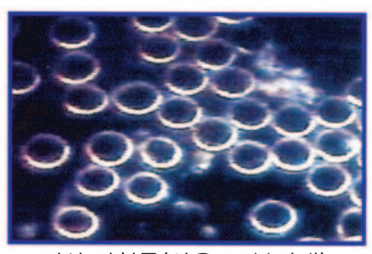
무엇보다 조계종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생명의 종교로 일컬어지는 불교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불교기후행동을 조직하고 각종 실천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범불교적으로 확산되기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종단 차원의 첫 조직으로 꾸려질 '기후위기 대응소위원회'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송지희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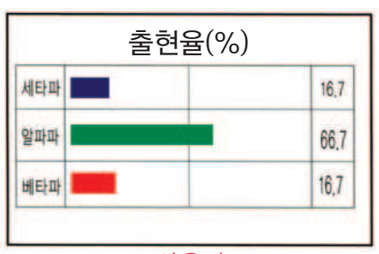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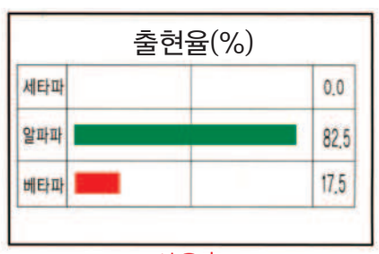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를 해주면 축농증, 비염 완화 및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조계종 연수교육 온라인 전면 전환

교육원, 자체 플랫폼 구축… 강좌형 연수 온라인화

수강률 확인 등 수강 편의성 높여
해외 스님들 귀국 않고 연수 가능
향후 일반 공개 포교 활용 계획도
지원봉사·순례형 연수, 잠정 중단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려 연수가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자체 연수교육 플랫폼 구축을 1차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 일정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연수교육은 △강좌형 연수 △인증교육 연수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중 조계종 교육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강좌형 연수는 '종교와 불교교단'을 제외한 4개 과정 21개 강좌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좌형 연수의 전면 온라인화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올해에도 지속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일부 승려 연수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자체 플랫폼이 없어 강좌 신청이나 진도, 수강율 확인이 어려워 스님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 플랫폼 구축을 준비했고, 올해 초부터 플랫폼 제작에 들어가 1차 완성을 마쳤다.



조계종 교육원이 새롭게 구축한 종단 승려 연수교육 플랫폼 메인 화면. 이를 통해 21개 강좌형 연수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새로 구축된 온라인 연수교육 플랫폼은 수강하는 스님들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 로그인을 하면 강좌 신청부터 강의 수강, 진도·수강률 등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단순히 강의로 끝나지 않고, 사전 제작한 현장 답사 영상을 제공해 현장성을 가미하는 등 강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계종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비대면 연수를 진행했으나 강의를 수강하는 스님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자체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연수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외 거주 스님들은 그간 연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강좌 연수 온라인화로 연수교육을 위해 귀국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조계종 교육원은 온라인 연수교육에 사용된 콘텐츠 중 일부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이러닝 학습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원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 재가자에게도 공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교육 연수는 서울 26개, 경기 2개, 강원·충청 6개, 대구·경북 6개, 부산·울산·경남 4개, 전남 2개, 제주 1개, 전국 대상 4개 등 전국 5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진행한다. 2018년 시작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 프로그램은 현재 27개 결사체가 인증단체로 선정돼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국내·외 문화탐방으로 진행하는 '순례형 연수'는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또한, 법계 과정은 신청 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 '종단리더십심화과정'은 '중덕·정덕 법계과정'으로, '종단지도자과정'은 '대덕·혜덕 법계과정'으로, '종단지도자최고위과정'은 '종덕·현덕 법계과정'으로 바뀌었다. 중덕·정덕 법계 수지 1~5년차에 해당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덕·정덕 법계과정1'은 올해도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연수교육 강좌 일정과 내용을 알리고자 전국 사찰에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선운사, 내장사 화재 참회…수습복구 만전

3월 5일 내장사 방화로 대웅보전 소실

방화범은 예비승려 확인돼 충격
종단·선운사 즉각 입장문 발표
면밀조사 후 대책 마련 등 추진

정읍 내장사 대웅보전이 3월 5일 화재로 소실됐다. 화재의 원인이 방화인데다, 방화범이 사찰에 머물던 예비승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조계종과 제24교구본사 선운사가 즉각 참회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와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장사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날 오후 6시35분경이다. 신고를 받은 전북소방본부가 즉시 출동에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대웅보전은 불길에 휩싸인 채였다. 빠르게 번지는 불길에 대웅보전은 전소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웅보전 옆 관음전에 보관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49호 조선 동종과 전라북도 기념물인 내장사지,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비록 대웅보전은 소실됐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화재의 초기진화를 위한 사찰 대중들의 노력 덕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중에 있던 스님과 종무원들은 불길을 발견한 즉시 화재신고를 한 후 모두 달려 나와 진화에 나섰다. 이미 대웅보전에 불길이 붙은 상황에서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사찰에 비치된 소화전을 이용해 다른 전각과 산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묵 스님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화의 원인이 '사찰 내부갈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방화범 A씨와 함께 지냈던 사찰 대중 스님들은 "방화 1시간 전까지 함께 차를 마시는 등 다툼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무엇보다 함께 지내는 동안 사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적도 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스님들은 "3월 5일은 문중의 어른 스님인 기산 스님의 기일로, 모두 추모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3월 5일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보전.

방화범 A씨는 타종단에서 전종해 갓 승가대학을 졸업한 예비승려로, 방화 후 현장검거돼 현재 구속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내장사 화재와 관련, 조계종과 선운사는 즉각 참회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조사와 복구 등을 통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은 3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화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방화행위에 대해서는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 따라 최고수위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운사도 참회의 뜻을 밝히며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방화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찰의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내장사 사건과 관련한 참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내장사 대웅전 소실이라는 참담한 소식에 상심이 많으셨을 사부대중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종단은 원인을 깊이 살펴 사건 수습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회의에 앞서 참회와 더불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후쿠시마 10주년…종교인 탈핵 선언

5대 종교, 3월 6일 기도회
불교환경, 탈핵퍼레이드도



불교환경연대 현중 스님의 기도문 낭독.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5대 종교계가 핵없는 세상을 재차 선언했다.

5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3월 6일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기해 탈핵 선언을 넘어선 탈핵 실현을 위한 종교인 기도회를 봉행했다. 종교환경회의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 5대 종교 연대 조직이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됐다. 스님은 발원문에서 "핵발전을 멈추고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불교환경연대 주도로 3월 11일 국회 정문에서 청와대까지 '잊지말자 후쿠시마! 끝내자 핵발전!'을 주제로 탈핵을 촉구하는 행진도 진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죽음 부른 차별"…차별금지법 촉구

사노위, 3월 5일 입장문
3월 18일부터 기도회 재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3월 5일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또 3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다시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사노위는 "김기홍 님과 변희수 님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선행 지음 | 14,000원

맑은 가난
수행과 정진의 가르침

淸貧

맑고 가난한 마음, 그것이 수행이다

정진하는 수행자 선행 스님이
수행하는 삶에서 마주한 하루하루의 기록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작은 걸망에 의지한 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수행자의 35년을 반조하는 수행기 45편

지은이 선 행

통도사 강원과 율원을 거쳐, 은해사 삼장 경학원을 1기로 졸업했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0여 년 참선을 했고, 통도사, 해인사, 법주사 강원을 거쳐 백양사, 선운사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는 영축총림 통도사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다.

담앤북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같이”…출가·열반정진 이어진다

조계종 포교원 수행공모전
어린이 만화도 제작 배포
전국 사찰들도 기도 입재
코로나 확산으로 줄취소서
온오프라인 병행기도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에서 진행하는 출가·열반재일 수행공모포스터(사진 왼쪽)와 배포된 어린이 만화(사진 오른쪽).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다양한 수행정진이 전국에서 이어진다. 불자들의 수행문화 진작을 위하여 불교 4대명절 수행정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출가재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을 맞아 ‘수행 공모전’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공동체의 힘으로 다함께 수행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불자의 삶을 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번 ‘수행공모전’은 사찰 어린이·청소년법회, 불교대학, 대학생 불교동아리 등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 및 기관의 신도 신행조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소 5인 이상이면 대면 활동일 경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된다. 내용으로는 3월 20일 출가재일에서 3월 27일 열반재일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 수행모임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정한 계획에 따라 출가·열반재일의 의미를 잘 살려 정진하는 내용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지원할 수 있다.

포교원은 ‘수행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모임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불서와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또한 출가·열반재일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행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PDF파일로 된 온라인 책자와 어린이용 컷툰 만화도 제작하여 배포한다. 온라인 책자와 어린이용 컷툰 만화는 △출가·열반재일의 의미 △수행법 안내 △수행공모전 참여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컷툰 만화는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원 산하단체 홈페이지 및 SNS채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만 출가열반재일 기도를 진행하거나, 출가열반기도를 취소했던 전국 사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가열반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의 경우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금강경〉 독송기도를 8일간 봉행한다. 법왕루에서 진행되는 이번 독송기도는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20일과 27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법사로 하여 특별법회도 이어진다. 특별법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봉은사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신도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정진기간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3월 20일 입재해 3월 25일 회향하는 출가열반재일 기도를 진행한다. 조계사는 이번 기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법당 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사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조계사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가 안전하기를 기도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국제선센터 등 사찰들도 3월 20일부터 출가재일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출가열반재일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출가열반재일은 싯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발심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출가재일과 45년간 중생교화를 마치신 후 열반한 열반재일을 기리는 주간이다. 일주일 사이인 이 기간에 사부대중이 부처님 출가 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와 정진에 집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가정에서의 기도 수행을 권장했다.

4.7보궐선거 종교편향 방지 추진

종교평화위 1차 회의서 올해 사업 계획도 확정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올해 4월 7일 예정된 보궐선거 및 2021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체계적인 종교차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는 3월 10일 2021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 선거시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올해 주요사업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도심 스님과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방창덕 포교사단장, 김상규 중앙신도회 부회장,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김상경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도심 스님은 “현재도 다양한 종교편향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평화를 위한 대안마련에 종평위의 역할과 의무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평위는 올해 공직자 선거시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사무소, 소속 당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향후 체계적인 종교차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포교사단, 중앙신도회, 대불청, 대불련과 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 연구사업으로는 △‘종교편향과 차별이 왜 문제가 되는지’와 관련해 대중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카드뉴스 등 교육 콘텐츠 개발 △공직자 사회의 차별 실태 파악 △외국에서의 증오범죄법 적용사례 등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종평위는 최근 진행 중인 종교차별 현안을 공유했다. 종평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지선버스인 1222번 진아교통이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은 예수입니다’라는 선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서울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종평위는 이와 관련 “향후 불교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미얀마 폭력진압, 불교계 규탄 잇따라

다불련·대불청 등 입장문 KCRP도 입장 표명 논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군부의 폭력진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도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회장 담마끼띠, 이하 다불련)는 3월 11일 ‘미얀마 군부는 폭력 진압을 그쳐야 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불련은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신자인 불교국가 미얀마가 총성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하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젊은이들이 총격에 무참히 죽어가고 부당상한 시민들이 치료받던 병원과 대학조차 군이 무력으로 점거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불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나라에서 이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군부는 이제라도 업과 인과의 지중함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권리가 중시되는 시대에 무력진압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로서 필연적인 과보로 돌아올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와 비폭력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전쟁이나 폭력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 다불련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를 다시 깃들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며 “비폭력과 자비의 길을 걷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3월 10일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청년불자 성명’을 내고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불자들은 군부의 무력 탄압에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미얀마 군부의 무력사용 중단과 인권보장, 민주주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대불청은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KCRP도 3월 11일 회의를 열고 3월 25일 총회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성명서 채택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자비와 원력으로 코로나 이겨내자”

포교사단, 포교사의날 개최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1주년 및 제8회 포교사의날 기념식이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방창덕 단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단장 및 포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창덕 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모든 포교활동에 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화합 단결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7일 포교사의 날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번엔 영세서점 위해 뛰었죠”

진오 스님, 서점 위해 마라톤
3월 9일 서울서 정진 회향해
부산서 서울까지 525km 걸어
인터파크송인서적 사태에 발심

“어려운 서점들의 형편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건강한 책 생태계를 위하여 달린다’를 주제로 진행한 525km의 마라톤 대장정이 3월 9일 회향했다. 2월 26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출발해 3월 4일 대전 계룡문고를 거쳐 3월 9일 서울 팽스북스까지 스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위를 달렸다.

스님이 이번에 마라톤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영업이 멈춘 국내 2위 매출의 서적 도매업체 인터파크송인서적 사태 소식을 접하면서 부터다.



기부마라톤 중 동네서점을 찾아 서점활성화의 중요성을 전한 진오 스님(사진 오른쪽).

평소 스님을 후원했던 구미 삼일문고 김기중 대표가 안타까운 동네서점들의 상황을 전했고 스님은 발벗고 나섰다.

스님은 “서점인들의 염원을 안고 매일 10시간씩 달렸다”며 “도매업체가 무너지면 영세한 서점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는 이야기에 공익적인 의미가 있어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마라톤 중간 중간에 작가와의 만남과 동네책방 방문 등도 진행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인터넷 서점과 온라인 콘텐츠의 성장 이면에 감춰진 오프라인서점의 쇠락 현장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진오 스님은 “무작정 시작한 마라톤이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줘 감사했다. 특히 사찰에서 도움을 줘 너무나 감사했다”며 “불자들이 특히 영세 서점 공동체 상생에 관심을 가져줘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무엇보다 인터파크송인서적 인수조합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늘고 있어 희망적이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꿈도 꾸고 있다. 2019년 진행 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미국 대륙횡단 기부 마라톤이다.

진오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양극화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공동체를 함께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은 기부 밖에 없다”면서 “내년 6월 경에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미국에서 중단된 기부마라톤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고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org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4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1일(수)**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400만원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3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1일(수)**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8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1. 3. 20.(토) 13:30~17:4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제1주제 (밀교의 시각으로 본 대행스님의 ‘주인공’ -『한마음요전』을 통하여-)
발표 : 강대현(위덕대) 좌장 : 권기현(위덕대)
논평 : 1. 정성준(동국대) 2. 이석환(동국대)

□제2주제 (한국 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 의미)
발표 : 도윤수(인하대) 좌장 : 문명대(동국대)
논평 : 1. 법우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2. 김기상(아리건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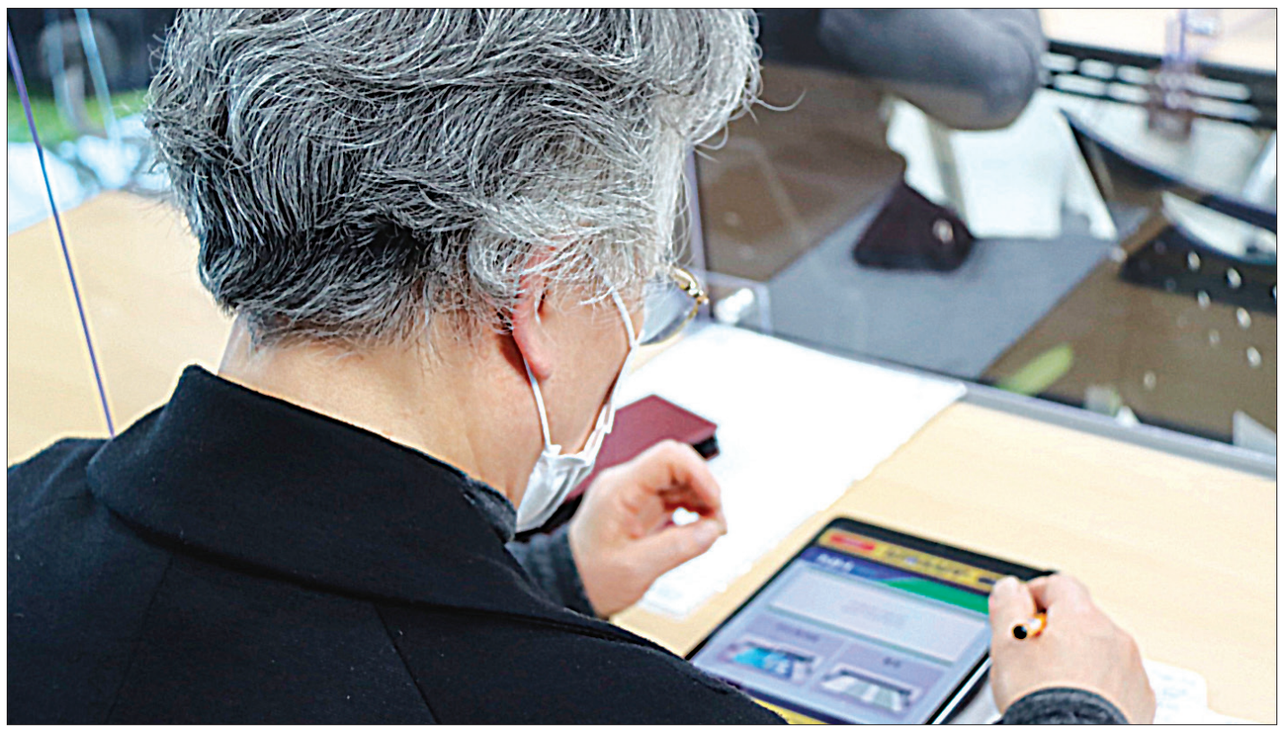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모바일 기부 하려는데, 폰 사용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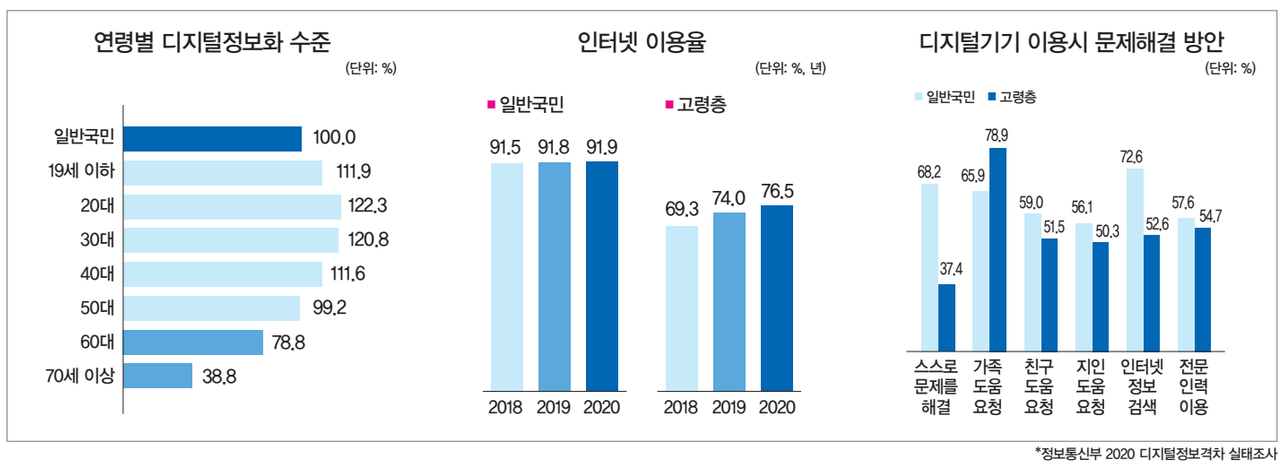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기부 방식 선호도 '랜선'이 1위
60대 이상선 선호 27.8% 불과
낮은 디지털 접근성 원인 지목
랜선 기부 확산은 시대의 흐름
불교 디지털 법회와 교육 필요



종로노인복지관이 지난해 진행한 어르신 디지털에이징 교육 모습. 자녀 등 가족에게 의존했던 것에서 점차 사찰 · 기관 등에서의 교육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대흐름인 랜선 기부에도 이같은 디지털에이징이 기반이 됨은 물론이다.



*정보통신부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핸드폰 쓸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줄 수 있나?" "스마트폰으로 기부? 그거 어려워서 못해"

사찰에서 만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신기남 할머니(73세)의 한숨어린 한마디다. 할머니는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폰은 단지 전화와 문자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이 할머니는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랜선 기부가 기부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고령층인 불자들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향상방안' 인 '디지털에이징' 의 필요성도 덩달아 부각되고 있다.

랜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넘어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드는 변곡점에서 고령층 불자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에이징이 사찰과 불교계 안팎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2020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연령별 디지털 역량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에이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디지털 에이징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잘 쓰며 나이가 드는 것으로, 고연령층에 대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 사회참여와 활발한 여가생활을 유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부 중 가장 선호 받는 방식 '랜선'

먼저 랜선 기부 방식은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가장 선호 받는 기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2018년 기빙인덱스 보고서에서 '기부요청을 받은 후 응답률' 사례에서 '거리모금이나 거리 회원 모집' 은 요청을 받고 기부하지 않은 비율이 32.2%, '기부단체의 직접요청' 은 기부하지 않는 비율이 26.5%, SNS기부 등 온라인 모금은 요청받은 후 기부하지 않은 비율이 14.4%로 나타났다. 온라인 모금이 자발적 동참에 근간하는 데서 실질적인 기부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선호하는 기부 방식 또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 27.1%, '모금함이나 저금통' 18.4%, '기부단체 직접요청' 17% 순으로 선호됐다.

다만 연령별 방식 차이에 대한 선호도에서 온라인 모금 캠페인 선호도는 19~29세에서 66.7%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서는 27.8%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랜선 기부 선호 왜 떨어지나?

60세 이상에서 랜선 기부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디지털 접근성 부족이 지적된다.

정보통신부 2020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기준 삼았을 시 20대는 122%, 30대는 121%, 40대 111%, 50대 99%, 60대 78%, 70세 이상 39%로 60세 이상에서 디지털 역량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도 사무직 120%, 학생 115%, 서비스직 102%, 생산직 100%에서 가정주부 76%, 농어민 65% 등으로 드러났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 4대 계층으로 한정한 4대 계층 종합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60.3%로 이중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53.7%로 가장 낮았다. 2019년과 대비한 역량 수준 상승폭 또한 고령층이 2.1% 상승으로 장애인(6.4% 상승), 저소득층(6.0% 상승), 농어민(5.4% 상승)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라는 광의적인 개념 대신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률을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은 76.5%로 정보취약 4대 계층 인터넷 이용률 84.9%와 일반국민 이용률 91.9%에 크게 못 미친다.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일반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인 93.1% 대비 크게 낮은 76.5%였으며, 고령층의 PC이용률은 일반국민 이용률 67.8% 대비 약 35%가 낮은 32.4% 수준이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누구나 익숙하지 못한 방법을 권유 받았을 때는 주저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면방식의 기부에서 최근 비대면방식의 기부문화가 변화하고 있지만, 고연령층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최근 각광받는 스마트폰 서비스, 카카오톡, 유튜브 등 SNS 분야를 보면 고령층의 접근성은 더욱 떨어진다.

1043명의 평생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 · 2020 서울시 복지관 평생교육 참여자 디지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9%인 518명이 전화 및 문자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이는 22.4%인 204명, 유튜브 시청은 189명인 20.7%로 나타냈다. 약 50%가 스마트폰을 쓰되 전화와 문자 등 간단한 기능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 문자만…어르신 랜선기부 먼 길

실제 현장에서는 랜선 기부 활성화의 어려움이 느껴진다. 사찰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모연 캠페인 행복바라미 관계자는 "카드식 기부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의 디지털 결제 등을 활용한 기부 또한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기부가 모금함의 현금 기부"라고 전했다.

랜선 기부의 방안으로 제시된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등 또한 고령의 어르신들의 참여율은 아예 플랫폼에서도 저연령층이 주된 대상이라고 밝힌 상태다. 해피빈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10대와 20대가 기부 참여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기부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있기에 대부분이 50대 이하 계층에서 참여가 이뤄진다"며 "그럼에도 랜선 기부 경우 기부영수증 발급, 미디어를 활용한 기부체감 증대, 참여의 용이성 등 장점에 힘입어 점점 참여폭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가듯 전 연령대에서 균형 잡힌 기부방식이 자리 잡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불교 디지털에이징은 필수

이처럼 기부문화의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랜선 기부가 불교계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령층 불자들의 디지털에이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의 고연령층 대상 '디지털기기 이용시 문제해결 방법' 을 보아도 대부분이 가족 도움 요청(78.9%)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사찰에서 종무원들이 신도들의 요청으로 가족처럼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전반적인 디지털 에이징이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 랜선 기부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랜선 기부 뿐만 아니라 최근 사찰에서 진행 중인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SNS를 활용한 포교전법 분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찰 대소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조계사의 경우에는 최근 이와 관련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조계사 측은 "최근 무인안내기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화를 진행 중에 있어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디지털 기기나 활용법, SNS 동참 등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에이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인터넷 복지서비스를 진행하여도 정작 40% 어르신들만 접속이 가능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복지인권에도 연결이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과 그에 수반되는 기부문화 활성화 등은 불교계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4차 정기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회칙 제4장 18조에 의거하여
제14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법 제정, 2021년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안건심의와
지난해 시행한 설문지 분석결과 및 사업실행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니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회칙 제4장 21조 ③항을 적용하고 회의는 대면, 비대면 동시 진행합니다.

- **일 시** : 불기2565(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 유튜브 전국비구니회 채널
- **안 건** : 1. 회칙제·개정의 건
  2. 선거법 제정의 건
  3.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건
  4. 2021년 예산 및 사업승인의 건
  5. 기타 안건

불기2565(2021)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

“이웃과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요”

용호종합사회福, 3월 4일 개관 25주년 기념식 개최

행복 나눔 퍼레이드 통해 소통
노인맞춤형서비스 최우수평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에 총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4일 복지관 내에서 개관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은 3월 4일 복지관 내에서 개관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 표창 및 유튜브 채널 개설 시청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갔다. 또, 25주년의 ‘25’와 개관일인 3월 4일의 숫자 ‘34’를 활용한 방명록 작성이벤트, 생일이벤트 등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복지관 측은 행복나눔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떡, 풍선 등 선물을 직접 지역사회에 나가 전달하며 지역민들과 25주년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민들이 있는 곳곳을 방문, 마을 사랑방으로 활동하고 이웃을 위한 소통 기관으로 활약한 옛 추억을 공유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며 복지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관이 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개관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지원 스님과 동성 스님, 이춘성 前 관장 등 내빈이 동참했다. 이들은 축사 및 인사말을 통해 복지활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25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유관기관을 비롯한 모든 지역주민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초대 관장이신 혜총 스님을 비롯해 복지관을 거쳐 간 모든 직원들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며 “오늘 25주년을 맞이했지만 100년을 기대하며 더 발전하고 의미있는 복지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25년간 복지관 직원과 주민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은 이용자들의 감동으로 이어져 현재 용호복지관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함께 행복하고 오붓한 복지관을 만들어나가겠다. 이번 행복나눔 퍼레이드를 통해 용호복지관이 지역거점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친밀한 복지관, 행복한 복지관, 활기찬 복지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춘성 문수복지재단 이사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난세’라 칭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우수하게 대처하고 헌신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했다. 용호복지관 직원뿐만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동참과 노고가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25주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수호하는 장승처럼 우리지역의 변함없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더불어 실현해 나아가는 평등세상’을 모토로 1996년 개관했다. 2000년 치매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낮 동안 가족처럼 보살피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고, 2003년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2008년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윤리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내외적인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2009년 아동발달상담센터를 확대해 언어, 미술, 심리, 감각통합치료 등 통합적인 치료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7년 고객만족도 1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5회 연속 최우수 선정, 장기요양서비스 3회 최우수등급 등에 선정됐다. 2020년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국 최고등급을 받는 등 부산 최고등급의 사회복지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창원 성주사 지역에 자비의쌀 나눔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지역민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성주사(주지 법안)는 3월 5일 창원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주사는 백미 20kg 100포, 총 2000kg를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쌀은 성주사 정초 산림 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 후원했으며, 쌀은 창원시 5개 구청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백승규 시의원, 김이순 신도회장, 황경숙 마야 회장, 이점숙 불모회장이 동참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산림기도를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 보시로 회향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내시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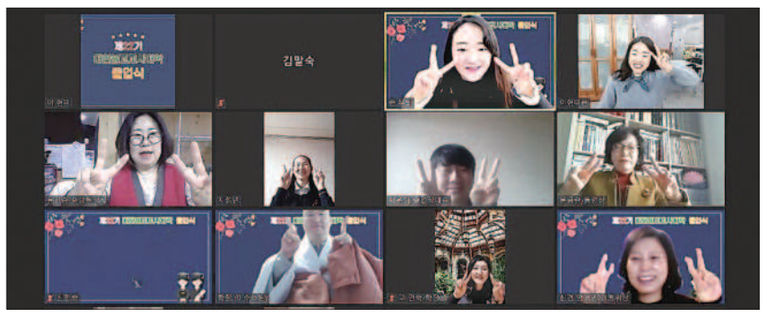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려운 시기인데 나눔을 베푼 성주사 스님과 신도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성주사는 3월 5일 창원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어린이법회 지도자 배출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2기 온라인 졸업 개최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은 3월 6일 제22기 대한불교교사대학 온라인 졸업식을 봉행했다.

어린이, 청소년법회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미수)은 3월 6일 제22기 대한불교교사대학 온라인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은 줌(Zoom)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장과 졸업선물, 우수졸업생상 및 상품을 미리 발송해 집에서 동참이 가능했다. 졸업식에서는 제22기 졸업생 23명을 대표해 박윤재 선생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우수 졸업생 시상 및 학장 미수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학장 미수 스님은 “어린이포교는 대작불사다.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생각을 크게 가져 미래포교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포교를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한 유인순 선생은 “줌과 밴드 등을 통해 앞으로도 포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11주기 추모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3월 9일 맑고향기롭게 서면 사무국에서 법정스님 원적 1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3월 9일 맑고향기롭게 서면 사무국에서 법정스님 원적 1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추모법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성주사 조실 흥교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법회는 개회와 예불 및 헌화 순으로 이어졌으며 생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영상 시청 및 내빈들의 인사말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자연을 돌아보면 법정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며 “자연과 생명의 지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관 회장은 “맑고 향기롭게 살아라는 법정 스님의 당부는 지금 현대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며 “오늘 날 우리가 겪을 안타까움을 미리 일러준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법사는 3월 7일 4층 원통보전에서 천수천안 · 준재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마산 정법사, 새 기법으로 불상 조성

3월 7일 천수천안 · 준재보살 관세음보살 점안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천수천안 · 준재보살 점안식을 봉행하고 관음도량으로 새롭게 우뚝 섰다. 정법사(주지 도문)는 3월 7일 4층 원통보전에서 천수천안 · 준재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정법사가 새롭게 조성한 천수천안 관음보살과 준재보살은 형식의 틀을 과감히 깬 작품으로 눈길을 받았다.

점안식에는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정법사 부주지 송정 스님을 비롯해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윤재선 불교조각예술원 대표, 김규리 통영자개 작가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정법사는 관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셨던 관음도량”이라며 “불상의 새로운 양식은 후대 많은 불자들이 지금의 문화를 엿보는 기쁨을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은 “신도님 한분 한분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모여 오늘 이렇게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다”며 “환희롭고 기쁨에 가슴이 벅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법사는 새로운 불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차 불사에서는 수월관음도를 유색옻칠로 조성했고 이번 2차 불사에서는 현대인의 눈에 맞춘 보살상으로 파격을 시도했다. 3차 불사에서는 32응신 관음상, 용왕, 남순동자, 아미타부처님 등이 추가로 제작, 봉안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전국 최초 불교환경대학 문연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4월 15일 개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08년부터 환경교육 진행
실천 운동, 학교 등서 병행
스님과 전문가 강사로 구성

빛고을 광주에 전국 최초의 불교환경대학이 개설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삼임대표 무등)는 4월 15일부터 12월까지 광주 양림동 소재 나무숲센터 3층 강당에서 불교대학 형태의 '제1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8개월간 진행하는 녹색불교아카데미는 전체 2학기로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불교의 교리, 하반기에는 불교와 환경,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강사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매월 1회 전문강사의 특강을 통해 심도깊은 환경 이슈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등 스님은 초대의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멈추게 했다. 이는 개발과 발전이 좋다는 미망, 인간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다"며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中道)의 가르침과 연기(緣起)의 가르침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녹색불교아카데미'를 개설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환경의 해법을 찾아가는 삶을 길을 모색하고 '지금여기 녹색불교'를 실현해가고자 한다"고 개설의 의미를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불교환경대학을 개설하고 제1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그동안 지역 불교단체의 한계를 넘어 환경운동단체로서 모범적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2020년 2월 현재 양림동 펭귄마을에 나무숲센터을 개관하면서 전문교육관인 그린담마홀, 청소년환경교육센터, 옥상에 나무숲 텃밭을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해모 운영위원장은 "환경운동이 인간중심의 방식에서 인간과 환경이 한 몸임을 깨닫고 삶을 보다 단순화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제 환경운동의 중심에 불자들이 해야한다"며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 불교환경대학은 강사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님들로 구성됐다. 무등스님, 상진 스님(광덕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소운 스님(관음사 주지), 수월 스님(원효암 주지), 담준 스님(선덕사 주지)이 불교교리와 부처님 일생 등을 강의하며, 천도 스님(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혜오 스님(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법일 스님(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용묵 스님(남원 실상사 주지),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 등이 다양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가수 이현미, 김익중 명예교수(동국대 의대), 법인스님(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유정길 소장(녹색불교연구소), 조길예 명예교수(전남대), 정봉남 시민참여팀장(광주시교육청), 최지현 정책실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매월 특강을 진행한다.

금산사, 수현사 법당건립 추진한다

조계종 제17교구(교구장 일원, 금산사 주지) 교구종회가 3월 5일 수현사 3층 대법당에서 교구종회의원 스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20년도 결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개최, 도법스님 대종사 추대, 수현사 법당 건립불사, 기타토의 등이 상정됐다.

이어 완주 화암사 주지 방착 스님,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 자명사 주지 행심 스님과 금산사 사회국장 우림 스님에게 임명장이 전달됐다.

새해 예산 심의에서는 승려복지기금이 별도로 신설돼 교구스님들의 병원비,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대종사에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또 교구종회서는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평 규모의 법당을 건립하는 불사를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 확정

4월 17일 기원탑 점등시작 5월 15일 연등축제



전북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4월 17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의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덕진공원 어린이큰잔치, 5월 15일 전북도청광장 연등축제, 행복바라미축제로 전개된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는 3월 5일 전북혁신도시 수현사 3층에서 봉축위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결과를 결정했다.〈사진〉

전북불교회관 이영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봉축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일원 스님과 진성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총무국장 화평 스님, 태고종 도홍 스님, 보문종 지용 스님, 용화종 용성 스님 등 전주 완주지역 사암 스님들과 금산사 신도회 이근재 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신도 및 포교단체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봉축위원장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연등회가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첫해여서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결하는 행사는 개최하기 어렵더라도, 장엄만큼은 더욱 신경을 써서 지친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위로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봉축위는 각 지역의 합창단이 참가하는 전북연합합창제와 6탄약창 연등제와 전북경찰청 위문법회도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5월 29일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마지막 봉축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봉축행사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대규모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참신하고 시민들에게 호평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려울수록 부처님 가르침 공부를"

전북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 '제34기 불교학과 및 제29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3월 7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입학식은 개회, 삼귀의, 연혁보고, 입학허가선언, 입학생선서, 입학식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구 학장을 비롯해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 김인석 회장, 전법사회 태기준 회장과 80여 명의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서 이창구 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부처님의 법을 배우러 많은 분들이 오셨다"며 "전북불교대학은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학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불교대학이 '제34기 불교학과 및 제29기 법사과 입학식'을 봉행했다.

전북불교대학 백준기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30여 년 전 뜻있는 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전북불교대학에서 내면의 세계를 잘 관찰하시고 모두가 부처님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선사, '전통다도원' 창립총회…다례 계승 첫발

3월7일 창립기념식 · 총회 개최
다도반 승격…강사 선발 시험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가 기존 다도반을 승격한 형태의 전통다도원을 창립했다. 전통다도원은 향후 전통다례 계승 및 다인 양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남양주 봉선사는 3월 7일 경내 일승원에서 '봉선사 전통다도원'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총회와 창립기념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강사 선발식을 통해 전통다도원 다인을 양성하기 위한 토대도 구축했다. 전통다도원은 2006년부터 교구 내 말사에서 이어져 온 다도반을 교구조직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봉선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전통다례 계승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다도원은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을 총재로, 문화원장 오봉 스님(석굴암 주지)을 지도법사로 운영된다.



창립법회는 초격 스님과 오봉 스님, 김미려 다도반 회장을 비롯한 강사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훈래 문화특보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재 초격 스님은 "비불교인들도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

사찰 입장료 폐지를 통해 지역민들과의 상생협약을 했던 천은사가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리산 천은사(주지 종효)는 3월 6일 천은사 입구에서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힐링과 휴식의 공간을 개관했다.〈사진〉

천은사는 지난 2019년 4월 산문개방과 함께 8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리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천은사 안전운영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조성사업은 45억원(국비 25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천은사 입구 저수지 무장애 수변데크(3.3km), 숲길 탐방로를 비롯해, 수변찻집, 휴게소 리모델링을 통해 천은사 문화유적과 산림자원을 시민들의 힐링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준공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종효 스님, 김영록 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스님들과 100여명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어려운 시기, 용기 갖고 백신 맞길”

달라이라마, 3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의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받아 화제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들과 세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백신을 맞으라고 격려했다.

지난 3월 6일 ‘뉴욕 타임즈’, ‘힌두스탄 타임즈’ 등의 주요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백신 접종을 특별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와 자신의 관저가 있는 다람살라 병원의 코로나 백신센터에서 백신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별다른 부작용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접종을 받은 그 자리에서 백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촬영, 다음날 유튜브와 공식 사무국을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달라이라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백신을 맞길 바란다”며 백신 접종을 격려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두 달 전쯤 인도 정부와 캉그라 지구 최고 의료책임자에게 티베트 망명정부가 달라이라마와 망명정부 인사, 그리고 인도 티베트인 망명공동체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당시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며 “이는 백신 수급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달 만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었다. 인도 보건 당국과의 회의를 통해 달라이라마께서 관저 안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다른 일반 시민처럼 직접 병원으로 가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존자의 뜻에 따라 접종 계획을 바꿨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가 백신을 접종 받은 것은, 최근 퍼지고 있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응원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영상 메시지에서 “많은 환자들이 백신을 맞았고, 나 역시도 방금 백신을 맞았다. 이 백신은 이 어려운 상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받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

다람살라가 소재한 히마찰프라데시주 캉그라 지구의 의료 최고책임자 구르다르샨 굽타 박사는 “캉그라 지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월 16일부터 진행 중이었다. 인도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 최전선에 있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을 우선으로 접종을 시작했다”며 “2차 접종은 2월 13일부터 시행했으며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달라이라마는 인도에서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월 21일 델리 AIMS에서 바이오기업 바랏 바이오테크놀로지(Barat Biethics)와 인도 의료연구회가 개발한 인도 토종 코로나 19 백신인 코박신(Covaxin)을 1회 접종했다.

현재 인도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0만명이 넘었으며 지금까지 15만 8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LA서 또 증오범죄 훼불 사건 발생

日 사찰, 신원 불명 백인 남성에 의한 방화 등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의 한 일본불교 사찰이 증오범죄 테러로 훼손됐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의 3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LA 시내 리틀도쿄 내에 위치한 일본불교 사원 히가시 혼간지(Higashi Honganji)가 지난달 26일 훼불 피해를 입었다.

사원 내 CCTV에 포착된 신원 불명의 백인 남성(30대 초반 추정)은 사원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출입구 조명을 부수고 일본의 전통 등불 등 사찰 구조물에 방화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사원의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당시 보안 경비인력은 부재중이었고, 보안 알람 시스템은 꺼져 있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사원 관계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노리아키 이토(Noriaki Ito · 72) 주지 스님은 “테러 당한 사원의 상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큰 실망과 슬픔을 느꼈다”며 “동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적이 된 것 같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일본의 전통 등불은 1976년 사찰에 기증된 것이다. 방화 당시 경내에 머물던 스님이 달려가 즉각 소화기로 불을 진압,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 스님이 나타나자 달아났다. 범행 당시 검은색 야구모자와 주황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원 불명 남성에 의해 훼손된 사찰 구조물. 사진출처=Nippon 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히가시 혼간지는 일본 정토진종에 근거한 사찰로, LA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 불교 사원이다. 현지 언론 ‘LA타임즈’에 따르면, LA 경찰 당국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지역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등에 대해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2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LA 인근 산타아나 지역의 베트남 사찰이 증오범죄로 인한 훼불 피해를 입었다. 박정현 기자

싱가폴 삼학수행 웹 컨퍼런스 진행

14개국서 참가해…달라이라마 기조연설

싱가포르 티베트 불교센터(TBC)가 3월 5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리-산스크리트어 불교전통의 삼학수행’이라는 주제로 국제불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 컨퍼런스엔 전세계의 남방불교와 대승불교 전통의 14개국, 35여명의 연사와 토론자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TBC의 위니 사무국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 약 5억명의 불교신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바로 불교철학이며 그 기본은 자비와 연민이다. 그러나 각 세계로 전파된 불교는 국가와 인종, 문화에 따라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테라와다로 대표되는 팔리어 전통과, 대승불교로 대표되는 산스크리트 전통으로 나뉘지만 이들의 기본 수행은 바로 계정혜의 삼학”이라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의 테라와다 불교협회들과 대만, 베트남, 미국, 러시아의 대승불교 단체 등 총 12개 불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한국 티베트 하우스(랍숨섀둡링)가 공동운영위로 참가했다. 테라와다 측에선 캄보디아와 미얀마 역시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상황상 불참한 것으로 전했다.

TBC 측은 “팔리어 전통과 산스크리트어 전통 불교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불교협회 등을 조직하고 의논해왔다.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인터넷 통신의 발전이 웹 컨퍼런스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랫동안 두 전통의 상호발전을 강조해온 달라이라마 존자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태국의 마하야노 스님을 사회자로, 대만불교협회 이사장인 징야오 스님, 국제불교도연맹 인도사무총장인 담마피야 스님, 스리랑카의 라만나 마하니까야 종단의 마쿨라위 위말라 마하나야케 종정 스님 등이 각각 개회사를 전했다.



TBC 삼학수행 웹컨퍼런스 포스터.

징야오 스님은 “팔리전통과 산스크리트 전통의 삼학수행은 모두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며 이 수행들은 모두 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담마피야 스님은 “다른 언어, 다른 전통으로 불교가 퍼졌지만 공통된 뿌리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같은 계정혜의 삼학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남방과 북방의 공통성을 말했다.

이어서 마쿨라위 위말라 마하나야케 스님은 “계정혜의 삼학은 모두 단계적으로 이어짐을 관찰해야한다”며 깨달음을 위한 길이 삼학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기조강연에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은 논리에 있다.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에 근거하는 불교는 과학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지금껏 볼 수 없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삼학을 수행하는데 있어 논리와 인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팔리어 전통과 산스크리트어 전통에서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계율이며, 이를 통해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 져야한다”고 연설했다.

컨퍼런스는 양일에 걸쳐 각각 계학, 정학, 혜학으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계학에선 출가자들을 위한 율장 세션과 재가자들을 위한 계학 세션이 각각 별도로 진행됐다. 특히 혜학 세션의 토론에서는 ‘비아(非我)와 무아(無我)’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사찰, 성소수자 위한 혼례식 마련

‘평등’ 원칙 계승 취지

일본의 한 사찰이 성소수자(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퀴어 등)들을 위한 전통 혼례식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찰 내 혼례를 주선한 것이다.

3월 9일 ‘Timeou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사이 요우지(Saimyouji) 사찰은 혼례를 올리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통 불교 혼례식을 진행한다. 일본에서 동성 간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일부 지자체별로 인정된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혼례는 타종으로 시작돼 부부와 하객들의 본당 입장, 스님의 발원 기도 등 순으로 진행된다. 부부는 불상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기에 앞서 스님으로부터 성수와 구슬을 받고,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을 향해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운다.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사이 요우지(Saimyouji) 사찰에서 전통 혼례를 올린 성소수자 커플. 사진출처=Timeout

750년 이상 된 사이 요우지 사찰은 차별을 지양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다는 취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당 매체는 “묘칸 센다(Myokan Senda) 주지 스님은 사원 밖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 활동을 펼친다”며 “LGBTQ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LGBTQ 행사에 참여해 무지개색 전통 화과자를 나눠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찰이 오랜시간 이러한 노력을 해온 덕분에 지역 내 성소수자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 여겨진다”고도 덧붙였다. 박정현 기자

“명궁(名弓)이 쏜 화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돌멩이 하나로 꿩 두 마리 잡았다(水地比)
천문동(天門冬)과 통쾌희(痛快喜)의 합동작전 개시!”

천문동, 회화실, 강황, 황금, 도라지 外 3종 성분 및 효능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 유근피 外 2종 인터넷 참조

기침, 가래, 비염, 호흡기, 기관지, 천식, 폐질환
무릎, 팔다리, 허리, 관절통, 뒷목, 연골 보호, 소염, 진통

※부디 99세까지는 기침, 가래, 비염, 기관지, 호흡기, 폐 질환, 흡연, 바이러스(천문동)에 맡기시고 무릎, 팔다리, 손목, 뒷목, 허리관절통과 연골 소염진통은(통쾌희)가 마무리할 것이니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제조과정 : 보스웰리아, 두충, 우슬, 홍화씨 등을 깨끗이 정제한 후 대형 열 탱크에 넣고 가열하여 진액(一名 엑기스)을 추출한 후 미리 법제한 국산 토종 천문동과 회화 열매 분말과 합제 한 후 쇳가루와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녹두대 丸으로 제조되었다.

※워낙 고가의 재료와 제조과정이 까다로워 판매 보급가가 부담이되실까 염려되어 일단 무료체험 기회를 드릴 것이니 희망자는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200명에게만 배송해 드립니다. 배송비 4,000원만 부담하십시오! 단 무료로 드시는 대신 10일 동안은 꾸준히 드시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 후에 선택과 판단은 그때 가서 하십시오.영양제나 보약처럼 장기복용이 아니라, 짧고 굵게 20日~30日이면 놀라운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내 몸이 답을 줄 것입니다.
진솔한 마음과 정신의 혼을 담아 지극히 효심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자: 林大業)

※주소 : 문자 주십시오. 010-7159-5737/010-8181-2699 농협계좌 : 355-0068-7416-53 (호산헬시코리아, 임대업)

| 무료 체험용 |



50g 10일분

호산 헬시코리아
www.hosanhealty.com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할 의무다!
왜? 자식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가? (비지니스, 효도선물로는 최고의 제품)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0~3/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 그림 경전 말씀	혜조스님	운주사	6	불교를 사랑한 조선 유학자의 선어록	김대현	운주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행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0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적명을 말하다(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9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5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티베트 사람들의 보리심 기도문	청전스님	불광출판사

책세상

"수행자에게 가난은 간절함이다"



맑은 가난

선행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 하성미 기자



이 책의 저자인 통도사 포교국장 선행 스님이 원고 교열을 보고 있다.

신심 북돋는 승가의 일상 담아
36년 동안 반조해 얻은 수행기
불가 언어 명료하게 담아 전달
바른 회향을 위한 스님의 발원

공부와 정진하는 수행자 통도사 포교국장 선행 스님이 매주, 하루하루를 기록한 산문집을 펴냈다. 제목은 〈맑은 가난〉이다. 책 제목을 마주 대하면 으레 생각하는 수행자의 진부한 삶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책에서 저자는 생기롭고, 활력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것에 가난하다는 마음이 절실할수록 수행은 더욱 깊어진다"는 저자는 수행의 맑음과 수행자의 가난한 마음이 곧 정진과 수행이라고 이 책에서 역설한다. 저자가 책에서 들려주는 수행기는 대중과 불교대학 강의 등을 하며 부처님 말씀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야기들 모음이다. "부처님 제가 저의 역량껏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책의 저자인 통도사 포교국장 선행 스님의 기도이다. 출가 후 30여 년이 지났을 무렵, 스님의 입에선 저절로 원력이 담긴 이 기도가 나왔다. 부처님을 향한 시은(施恩)은 남은 삶의 갈무리이자 화두가 됐다. 그러던 중 한 신문사에서 승가의 수행상과 분위기를 통해 신심을 북돋는 데 보탬이 되는 취지의 글을 청탁했다. 글을 연재한지 일 년, 하나 둘 글이 모여 책으로 탄생된 게 이번 책이다. 책 제목의 '가난' 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궁핍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스님의 가난은 수행자의 간절함이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에 임해 비우고 비워내는 작업이다. 저자는 '기한(飢寒)' 이라는 제목의 책 속 글에서 향엄 선사의 게송을 인용해 가난의 의미를 피력했다.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올해의 가난이야 말로 진정한 가난이다/지난해엔 바늘 꽂을 땅도 없었는데 올해엔 바늘마저 없노라" 가난하다는 인식마저도 철저히 떨쳐 내듯 오롯한 성품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경지라고 저자는 가난을 설명했다.

간절함 마저 내려놓은 극한의 비움은 경지로 이끈다. 가난하고 간절한 수행자의 정진은 결실을 맺어 매화 보다 그윽한 깨달음의 향이 되고 가르침과 울림을 준다. 이것을 스님은 '맑은 가난' '청빈' 이라 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가난한 자신을 목도했을 때 비워내기를 위해 걸망을 지고 과감히 떠났다.

"출가 30년이 되던 해, 백장암 선원서 납자 스님들을 1년 동안 외호하는 소임을 봤습니다. 그 때 한 번은 통장을 확인했는데 4만원이 있더군요. 걸망 지고 다시 출가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실한 마음이었죠. 춥고 배고플 때일수록 정진하는 마음을 더욱 절실히 일으켜야 합니다."

책은 수행자들의 삶이 담겼다. 결과보다는 과정, 법문보다는 일상, 승가의 권위 보다는 솔직함이 더 많다. 글을 읽다보면 동질감을 일으킨다. 초월적인 신(神)처럼 다가갈 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 면모가 양념처럼 버무려져 읽는 동안 편안함을 선사한다. 강의하다 노래 한 곡조 뽑기도 하고 사찰 윷놀이, 첫사랑을 위한 연애 편지 내용도 들어있다. 글을 읽다보면 수행자의 일기를 살짝 꺼내보는 보는 심정이 된다. 완벽한 수행 성취로 불러일으켜진 경외심 보다는 소탈하고 편안하게 기술해둔 언어들이 정겨워 더욱 다가서게 만든다.

책은 '발심' '기도' '정진' '수행' 총 4편으로 나뉜다. 각 주제에 9개 혹은 14개로 나눠 소주제가 있고 총 44편의 산문이 있다. 글 제목은 반조(反照), 입적(入寂), 증곡(曾谷), 간경(看經), 안거(安居), 개산(開山), 시봉(侍奉) 등 불가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앞서 있고 첫 문단에서는 반드시 단어의 '풀이 및 정의' 가 있다. 소제목은 대부분 두 글자를 넘지 않아 명료한 글맛을 더해준다. '풀이 및 정의' 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진 않지만, 스님의 편안한 언어로 적어놓아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뒤를 따르는 스님의 일상은 의미를 더해 절묘하다.

저자 선행 스님은 20대 중반에 출가했다. 36년이 흐른 지금 공부의 갈무리로 '회향' 을 화두로 삼았다. 스님은 회향을 "자기가 닦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다 함께 성불하길 바라는 것"이라며 "통상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성취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고 책에 설명했다.

일의 마무리는 곧 완성이다. 회향을 모든 대중의 성불이라고 설명한 구절에서 굳건하고 고요한 산과 같은 스님의 의지도 엿보인다.

"이 책은 무엇보다 신중을 기했습니다. 취지가 승가의 수행상과 분위기를 보여주고 신심을 고취하는 것이기에 거듭해서 보고 또 검토했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달라는 기도는 모든 방면에서 발휘되길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수행 행보는 선 · 교 · 율 전체를 아우르는 탁마의 길이었다. 출가 전 속가 집의 내력이 남달라 유소년기에 〈천자문〉을 익혀 한자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강원 시절 도반들과 경전 독송할 땐 그 소리에 주목 받았고 강사진과 사중 스님들이 모처럼 공부하는 학인이 들어왔다며 기대를 하기까지 했다. 강원을 졸업하고 별도로 〈화엄경〉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1992년에는 송광사 율원 개원 초창기에 율장과 함께 유식에 밝은 스님을 중심으로 〈성유식론〉을 논강했고, 1995년에는 통도사 방장 월하 스님의 부름을 받아 율원을 개원해 1년 동안 〈사분율〉과 함께 다양한 불교개론서를 공부해 불교 이론을 정립했다. 1996년~1999년에는 한문 경전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해 종단서 처음 설립한 은해사 삼장 경학원서 〈화엄경〉을 공부했다. 그 후에는 해인사, 법주사 강원에서 강사로 소임을 보았고 선서인 서장과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을 강의했다. 또 백양사와 선운사 강원 강주로 활동하며 〈화엄경〉 전문을 강의했고 학부와 대학서 사회복지학 전공 및 대만 유학도 다녀와 교학의 폭을 넓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원에서의 공부도 치열했다. 흘연히 선원을 찾아 공부했던 스님은 2019년 통도사 선원서 1년 간 정진까지 10여 차례 선원서 정진했고, 그 기간만 10여 년이다.

포교국장 소임을 위해 통도사에 왔을 때 몇몇 대중들은 "왜 강주 소임서 포교국장이 되셨느냐?"고 질문했다. 그 때 마다 스님은 '회향' 을 언급했다. 직책으로 보면 강주가 더 높을 수 있지만 경계를 넘어서 보면 대중에게 공부한 바를 전하기에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뷰를 청하는 기자에게 첫 마디가 "수행의 회향을 위해 책을 발간했다"고 확고한 어투로 말했다. 회향을 향한 스님의 정성은 각고하다. 책 원고 마감을 위해 이틀 정도는 초저녁에 잠깐 잠을 자고 자정쯤 기상하는 것은 스님에게 정해진 일상이다. 글을 쓸 때 스님은 항상 만년필을 고집한다. 손으로 적고 정리하는 공책과 원고지를 다시 다듬어 글로 옮기고 퇴고를 거쳐 컴퓨터에 옮긴다. 그리고 또 다시 퇴고해 10번 정도 꼼꼼히 수정한다. 일일이 손으로 적기에 경전 강의 원고를 준비할 때는 어깨 통증이 심했다. 3년 전 BBS불교방송 라디오서 〈법화경〉을 강의할 땐 경구 전체를 요약 정리했다. 당시 원고지 3천매 분량이었고 펜이 12자루나 닳았다. 회향을 향한 '법열(法悅)' 의 힘이 저자를 책 출간으로 이끈 것 같다.

▲저자 선행 스님은?

충남 청양서 태어나 1985년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과 율원을 거쳐, 은해사 삼장 경학원을 1기로 졸업했다.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0여년 참선을 했고, 해인사, 법주사 강원의 강사를 거쳐 백양사, 선운사 강원의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는 영축총림 통도사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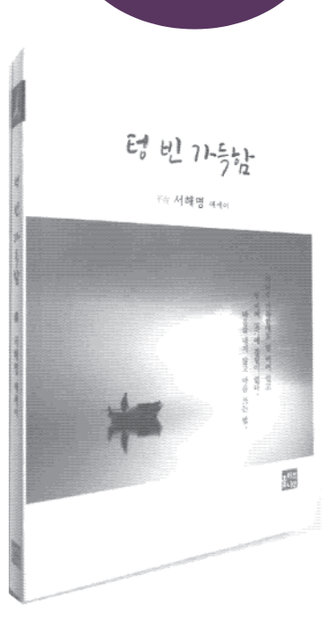
-"반조(反照)는 회광반조(回光返照)라 이른다. 곧 절박한 심정으로 몰입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본다는 의미다. 그간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겠다는 신조로 지내 왔는데, 어느덧 이력과 경륜을 말하게 되었다. 그동안 절묘하리만큼 때에 맞춰 정진하게 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청복(淸福) 곧 '맑고 한가한 복' 이었다 싶어 늘 감사한 마음이다."

-"외부의 환경, 곧 대상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반연(攀緣)이라 한다. 마치 소나무에 등나무가 의지해서 감싸고 있는 모습과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린 형상이겠다. 서로 공생하면서도 무리하게 감싸면 둘 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차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행자가 여러 정황이나 정진력에 걸맞게 신도를 제접해야지, 의지하고 의탁함이 지나치면 번뇌 망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맨 앞에서 절을 하는 만큼 여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처음 108배는 느리다 싶더니 이후에는 속담에 '꽁지에 불붙은 수탉처럼' 내리 절을 하셔서 젊은 내가 따라 하지 못해서야 되겠나 싶어 똑같이 보조를 맞췄다. 밤 9시부터 시작하여 108배할 때마다 옮겨 놓은 염주 30알이 한 으로 모두 채워졌다.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친 시간이 새벽 2시가 채 되지 않았다. 평소 웬만해서는 땀이 적은 편인데 그날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몸은 너무나 가볍고 개운한 느낌에 구름 위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회향 후 한동안 많은 분으로부터 위로와 함께 여러 통의 편지까지 받았다."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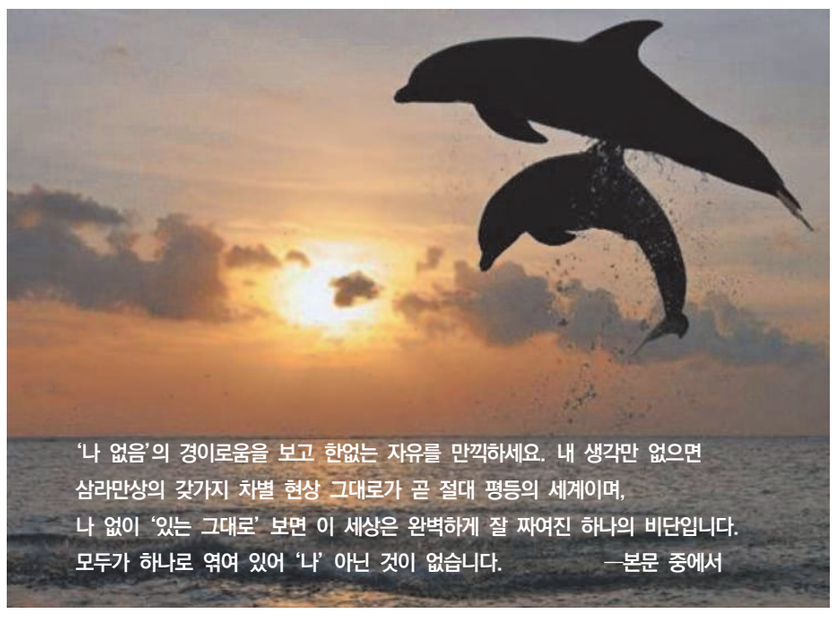
'나'라고 하는 몸과 맘의 허상을 떠나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무아지경의 황홀한 세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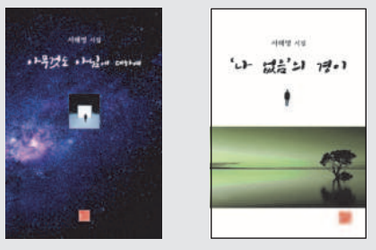
텅 빈 가득함

不在 서해명 에세이

하나로 가득함에도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기에 걸림이 없다.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 쓰는 법.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서해명 제1시집
아무것도 아님에 대하여

"나"라는 에고의 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지천으로 피어난 꽃들의 이야기— 장엄하고 친밀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절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서해명 제2시집
'나 없음'의 경이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해탈한 불교인'이 결혼하면 어떤 옥동자가 태어날까? 일찍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터를 닦은 서해명은 깨침의 종교인 불교를 그리스도교에 접목시킴으로써 '해탈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의 비유들이 갖는 참 의미를 발굴하고 확대 증폭하여 인간존재론의 21세기적 비경을 제시, 독자를 무아지경으로 끌어간다.

오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상담 및 강연 요청 ‖ 서해명 010-7770-2644

홍매화 찍으러 가요!

화엄사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촬영 · 출품



각황전 홍매화 · 길상암 들매화 촬영대회
당선작 4월 1일 화엄사 홈페이지에 발표
시상식 4월 3일 오후 1시 화엄사 각황전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리산 화엄사가 제1회 홍매화 · 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천년의 도량에서 매화와 노닐다' 를 개최한다.

각황전 앞 홍매화와 길상암 들매화를 감상만 하기 보다는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불자, 이웃종교인 등 모든 국민과 함께 '보고 느끼고, 기록하는' 화엄사의 홍매로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방법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화엄사 각황전 앞 홍매화와 길상암 들매화를 촬영한 사진을 3월 27일까지 화엄사 홈페이지 '홍매화 축제' 창에서 출품 양식을 따라 출품하면 된다.

촬영은 4인 1조로 30분씩 진행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출품작은 1인 2작품으로 제한한다. 개회식은 3월 21일 오전 10시 홍매화나무 아래 진행된다. 심사일은 3월 30일이며, 당선작은 4월 1일 화엄사 홈페이지와 BBS불교방송 아침저널을 통해 발표한다. 시상식은 4월 3일 오후 1시 화엄사에서 열린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이던 544년 연기대사가 창건했다. 이후 문무왕 10년이던 670년 의상대사가 화엄10찰을 불법 전파의 도량으로 삼으면서 화엄사의 중수가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에 들어서는 네 차례의 중수를 거쳤으나 이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소되는 안타까운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각황전만은 화재를 입지 않아 사찰 창건 유래에서처럼 중국 황제가 깨달음을 얻어 지은 전각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화엄사 각황전은 창건 초기에는 장육전이었다. 조선 숙종 때 각황전을 중건하게 되는데 이때, 각황전 조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계파선사가 지금의 홍매화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각황전 홍매화는 그 빛깔이 여느 홍매화 보다는 짙어 흑매화로도 불리며 장육전의 이름을 딴 장육화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화엄사의 홍매화는 각황전의 역사와 생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다. 각황전과 원통전 사이에 우뚝 선 화엄사의 상징 홍매화는 봄의 전령으로 지리산에서는 최고로 손꼽히는 도량의 신장과도 같은 나무다.

또한 길상암(산내 암자 중, 표지판이 없는 암자)은 구층암에서 약 50m쯤 떨어진 해장죽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있는 작은 암자이다. 바로 그곳에 지리산을 대표하는 야생매화가 있는데 이 매화가 바로 천연기념물 제485호로 지정된 수령 450년의 들매화(야생매화)이다.

이번 행사는 '천년도량에서 홍매화와 노닐다.' 라는 주제와 걸맞게 대중이 화합하고, 전 국민이 함께 어울리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촬영 부제인 '매화' '가족' '코로나 예방과 퇴치' '생명' '화합(하모니)을 제시하여 매화꽃이라는 무정물에서 고루 나누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1회로 개최되는 홍매화 ·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는 쉽고 편리한 사진 출품전이라는 점도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시상내역은 △화엄대상(교구장스님상) - 1명 팔로모 퀸사이즈침대 1개(500만원) △최우수상(구례군수상) - 1명 (팔로모 토퍼 90만원) △생명상(화엄사신도회장상) - 2명 팔로모 베개(30만원* 2인 = 60만원) △코로나퇴치상(구례군보건소장상)-12명(애플라인드 바람막이 자켓 (100만원) △가족상-10명 자동차 2차사고 예방콜라이프(130만원) △하모니상-10명 화엄사템플스테이 가족 4인 참가권 △매화상-10명 불스원 (40만원) △부상으로 홈페이지 접속 후 작품을 제출한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 제너시스 BBQ상품권 100매를 증정한다.

수상작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연말에 제작되는 화엄사 캘린더와 다양한 화엄사의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출품된 사진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화엄사에 귀속된다. 화엄사는 사진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모든 대중에게 소정의 증정품을 증정한다.

정근, 음악이 되다

일각 스님 기도송 '나마스' 출시
정근 · 감상 함께하는 명상음악
마음 편안해질 수 있는 정근송
"아리랑 같은 한국적 정근송"



"시방세계 항상 계신 삼보님께 정성 다해 예경 올립니다. 원하오니 이 기도송을 듣는 이는 모든 번뇌 끊어지고 밝은 지혜 자라나서 보리심이 생겨나며 지옥세계 멀리 떠나 삼계고해 벗어나고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중생 건져지이다"

'기도' 와 '감상' 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정근송 명상음악' 음반이 나왔다. '일각 스님의 기도송 나마스' (이하 나마스)이다.

'관세음보살' 등 '나마스' 에 실린 3곡(6트랙)의 기도송은 음악적 요소가 없었던 '정근염불' 에 음악을 깔고 칭명소리를 새롭게 작곡하여 선율화한 것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법당에서의 기도는 물론 일상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한국적 불교 명상 힐링 '음악' 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근은 선법을 더욱 자라게 하고 악법을 여의기 위한 수행법으로, 이번 나마스 출시는 기도와 수행을 음악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록곡인 '관세음보살' 은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전통음악의 '평조(솔라도레미)' 선율로 작곡된 곡이다. 현악기의 화음을 기초로 하여 국악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한다.

△두 번째 수록곡인 '나무이미타불' 은 단순한 노래 선율에 편곡을 새롭게 입히는 방식으로 작곡했다. 인상주의적 화성법을 사용하면서 풍부한 색채의 반주부를 만들었다. 중모리(12/4박) 풍의 느린 부분과 같은 가락을 빠르게 변주한 중중모리(12/8박)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율은 홋소리의 메나리 선법(미솔라도레)을 사용했다.

△세 번째 수록곡인 '석가모니불' 은 부처님의 모습을 장엄하게 그려보고자 한 곡으로, 전자음향을 배제하고 소금, 대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어쿠스틱 악기만을 사용했다. 음계적으로는 전통 홋소리에 나타나는 메나리 선법(미솔라도레)을 사용했으며, 리듬은 4박자를 고수했다.

이반 음반의 기획 · 제작은 LMB싱어즈와 제니시불교문화원을 설립해 한국 불교음악 발전에 매진해온 성악가 박성규 씨가 맡았으며, 작곡은 한국음악의 현장연구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대성 작곡가가 맡았다. 그리고 음반의 주체자인 일각 스님(석가사 주지)이 전곡의 노래를 불렀다.

이번 음반은 박성규 씨가 3년 전부터 석가사 합창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봄, 10여 년 전부터 한국적 음악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고유한 명상음악을 꿈꿨던 일각 스님의 원력을 박성규 지휘자가 알게 되면서 음반 제작이 본격화됐다.

일각 스님은 "대중들이 듣고 따라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정근송이 있었으면 했는데, 박성규 지휘자님을 만나서 오랜 숙원을 회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했다.

박성규 씨는 "이 음반의 가장 큰 목적은 '정근송의 대중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듣는 이가 평온을 찾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가장 큰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아리랑' 과 같은 한국적 정서가 담긴 명상 힐링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음반의 의미를 설명했다.

약 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발표된 이번 음반은 우선 일각 스님이 전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번 음반은 가격이 책정된 정식 음반이지만 이번 음반이 법회 집전은 물론 신도들의 기도용 등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박성규 씨는 "이번 나마스의 출시는 궁극적으로 한국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모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통일된 찬불가를 만들고 그것을 널리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도적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박재완 기자



'나마스' 를 전체 기획하고 노래한 일각 스님(좌측)과 기획 · 제작을 맡은 성악가 박성규 씨.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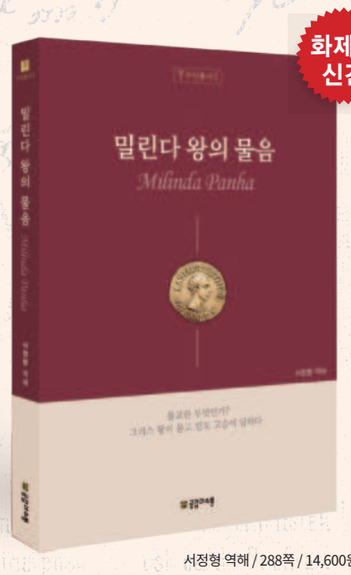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불교음악 전문 연구 · 진흥 본격화

한국불교음악학회 〈불교음악문화〉 창간호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 연구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는 의외로 불교음악이다. 학계에 발표되는 논문이 있지만 대부분 불교계가 아닌 음악 관련 학회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불교학술지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젠 불교학계도 불교음악 전문 연구 학회와 관련 학술지를 갖게 돼 향후 전문 연구자 발굴과 진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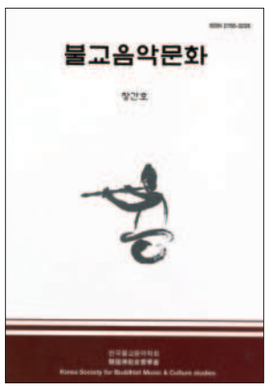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지난해 7월 13일 설립된 한국불교음악학회에서 3월 1일 자체 학술지 〈불교음악문화〉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한국불교음악학회는 불교음악원이 중심이 돼 설립됐다. 종교 활동의 장엄한 의식음악으로써 뿐만 아니라 관대한 포용력을 발휘하는 포교음악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규명하는 데 학회 설립의 목적을 뒀다. 초대 학회장은 '비목' 작사가로 잘 알려진 한명희 前 국립국악원장이 맡았다.

학회는 설립 후 논의를 거쳐 정기 학회지 〈불교음악문화〉 발간을 비롯해 △학술대회 개최 △불교음악학 아카데미 운영 △국내외 관계기관 · 단체 교류 △불교음악학 연구자 포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된 〈불교음악문화〉는 한국불교음악학회의 활동을 대중과 전문 연구자에게 알리는 첫 행보였다.

한명희 학회장은 창간호 권두언 '〈불교음악문화〉 창간을 고무(鼓舞)함'을 통해 "〈불교음악문화〉 발간이 한국불교음악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학회장은 "불가사의한 음악의 감화력은 종교 세계에도 여일하다. 서양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한 종교음악이 기독교를 홍성시켰듯이 동양에서는 범패라는 종교음악이 불교를 융흥시켰다"면서 "종교와 음악은 이이일(二而一)의 일심동체(一心同體)이자 불가분의 필연적 연분"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음악 전문 연구 목적
불교음악원서 학회 창립

창간호엔 불교음악원부터
전문 음악연구 논문 수록
년 2회 학술지 발간 계획

이어 "불교음악원 창설과 한국 유일 불교음악 전문 학술지 〈불교음악문화〉가 고고성(呱呱聲)을 울린 것은 한국불교의 획기적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낭보"라면서 "오늘의 고고성이 한국불교와 한국예술음악을 세계 만방에 선양하는 팡파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창간호의 특별기고문에서 "현재 불교음악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님들의 염불 교육은 구구전승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과학 ·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불교음악원에 그동안 바라던 한국불교음악학회가 설립됐다. 앞으로 불교음악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만큼 조계종 종단 주요 지도자 스님들의 관심도 높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창간 격려사에서 "불교음악의 역사와 실체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것은 불교음악인들의 오랜 아쉬움이었다"면서 "한국불교음악회의 설립은 불교음악 발전과 변화의 큰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총무원장 재직 당시 불교음악원을 설립한 장본인인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창간 격려사에서 대중 포교에 있어 불교음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소리이자 설법 자체다. 불교의식이 불교음악이고, 불교음악이 불교의식"이라면서 "불교음악원은 한국불교음악학회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불자들의 생활음악으로 불교음악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한결 같이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음악문화〉 창간호에는 불교음악 연구 현황을 비롯해 불교음악사, 범패 · 화청 등 전문 불교음악연구 논문이 실렸다.

경주 유적 조사 DB 자료집 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5천여 유적자료 목록화

신라 고도(古都) 경주의 각종 고고학적 조사 자료를 망라한 정책 자료집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경주에서 진행됐던 각종 고고학적 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을 분석한 정책 자료집 〈경주지역 유적조사 자료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연구〉를 발간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경주는 신라의 도읍으로 일찍부터 유적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돼 관련 자료의 취합이 쉽지 않아 유적 조사의 전체적인 추이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에서 이뤄졌던 각종 유적조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체계적인 조사 · 연구 방향을 가늠하고자 정책연구를 기획했다.

이번 책자는 총 5657건의 고고 유적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목록화하여 경주지역에서 이뤄진 유적조사 정보를 모두 담았다. 또한, 파편화된 경주의 유적조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편집했다.

1권에서는 경주지역 유적조사 데이터베이스 자료집을 토대로 △경주시 일반현황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분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시대별 · 유적성격별 · 조사사유별 · 발굴면적별 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주에서 이뤄진 유적조사의 현황과 추이를 살폈다.

2권에서는 읍 · 면 · 동 찾아보기를 통해 자료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주시 유적조사 자료 목록에는 표본 · 참관 · 시굴 · 발굴조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록했다. 각 유적조사 자료에 대한 관련 책자(보고서 등) 정보도 함께 표기해 전문적인 정보도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발간된 자료집은 문화재청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 · 경제학 접점을 논하다

동국대 세불연 학술대회

경제학과 불교학의 접점을 살피고, 불교경제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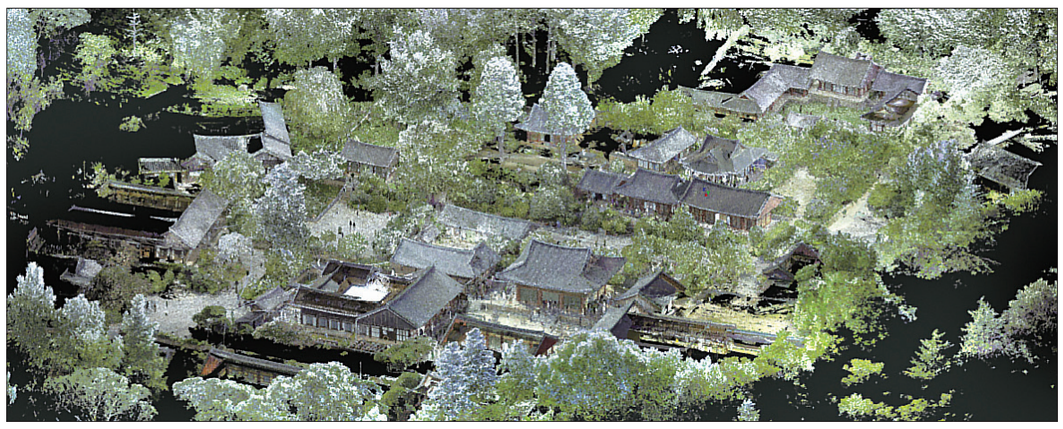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20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학과 경제학의 만남과 대화'를 주제로 제19회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불교의 구조와 불교학의 체계'를, 이상호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경제의 구조와 경제학의 체계'를, 박만섭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자본주의 경제학의 특징과 한계'를,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사회주의 경제학의 특징과 한계'를,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가 '불교경제학의 지형과 방법'을 각각 발표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는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는 경제학과 우리의 심층 마음을 구명하고 지혜 행법을 제시하는 불교학의 대화를 통해 접점과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학문적 체계인 불교경제학 정립을 시도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보 · 보물 3차원 DB 구축된다

문화재청, 구축 사업 진행
全지정 · 등록문화재 대상
2025년까지 713억원 투입
라이다 스캐닝 등 활용 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를 3차원 지상 라이다(LiDAR)로 200억개 위치 데이터를 취득한 뒤, 3mm이하 점밀도로 디지털 원형을 기록한 모습.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들을 3차원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713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모든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약 4000여 건(종이류 등 제외)에 대한 3차원(이하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문화유산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지상 및 항공에서 광대역 및 정밀 라이다 스캐닝(LiDAR), 사진측량(Photogrammetry), 초분광 및 열화상 광학센서 등 비접촉 디지털 데이터 획득방식을 이용해 문화재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를 훼손 없이 정확한 크기와 형태, 색상, 질감 등을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하고 기가픽셀급 해상도(초고해상도)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DB화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쉽게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3차원 DB구축 사업은 문화재청 직접 진행하며,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경상북도, 대구, 경상남도, 부산, 울산, 제주지역의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1460건에 대한 3차원 DB화가 이뤄진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라남 · 북도와 충청남 · 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2025년에는 서울과 경기 ·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사업의 성과물은 지진, 태풍, 산불, 방화 등 재난 · 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보존된다"면서 "현실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정확하게 디지털로 재현할 수 있어 실감콘텐츠 제작, 비대면 교육 · 관광, 웹툰 · 게임 · 영화 · 전시 · 디자인 등 문화산업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개방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문화재청은 3차원 DB 구축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입체감 있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 복원 · 주변 환경 정비 · 재난 방재 · 토지규제 민원처리 등 과학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고, 디지털 제작 콘텐츠에 부가가치를 높여 거래하는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문화유산 기술과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미래 문화유산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원 DB 구축 1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기관을 이달부터 공모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0

▶ 11회 예고
반란을 진압한 빈두사라는 선왕 찬다라굽따의 동지인 까울띨리야가 병사했다는 비보에 통곡한다. 반란수괴를 문초한 결과 짜라나비슈누 장수마저 그의 손에 죽었다는 자백을 받고는 낙심한다. 그 사이 아쇼까가 탄생한다.



빈두사라가 두려운 다르마

빈두사라왕 군사는 탁실라 부근 산자락에서 머물며 반란군의 동태를 살폈다. 브라흐민 제관 칼라따까는 이른 새벽에 인더강으로 나가 빈두사라왕을 위해 기도했다. 이윽고 탁실라로 잠입해 들어갔던 정찰조 조장이 돌아와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했다. 정찰조 조장은 탁실라 출신으로 그곳 지리에 밝은 장수였다.

"대왕이시여, 반란군의 군사력은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이옵니다. 반란수괴는 탁실라의 왕이라도 된 듯 행세하고 있사옵니다. 매일 연회를 열고 술에 취해 협력하지 않은 자들을 감옥에서 꺼내 한 사람씩 죽이고 있사옵니다."

"선왕의 친구들은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 살아 있을지 걱정이오."

선왕이란 빈두사라의 아버지 찬드라굽따였다. 찬드라굽따는 소년시절을 탁실라에서 성장하여 친구들이 많았던 것이다. 찬드라굽따를 도운 대신 까우띨리아나 짜라나비슈누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나이가 들자, 빠딸리뿌뜨라에서 모두 향수병에 걸려 고향인 탁실라로 돌아가고 말았다. 혹시라도 그들을 살해했다면 빈두사라는 반란수괴 일당을 몇 배로 보복할 작정이었다.

"지금 공격해도 되겠는가?"

"연회를 열기 전이니 이르옵니다.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옵니다."

"제관의 생각은 어떻소?"

"대왕이시여, 지금은 해가 뜨는 신성한 시간이옵니다. 그러니 악마가 날뛰는 오후 늦은 시간이 적기일 것 같사옵니다."

칼라따까의 대답에 빈두사라는 공격시간을 정했다.

"제관의 의견을 따르겠소. 조장은 선봉장을 불러오시오. 이번 공격에는 우리 군사의 사기를 위해서 내가 선봉에 서겠소. 우리 군사는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소. 출발할 때는 사기충천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쳐 있소. 그러니 왕이 선봉에 서야 할 것 같소."

"친위대인 코끼리 부대가 선봉에 나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코끼리 부대로 성 안을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소."

칼라따까는 피의 보복이 시작되는가 싶어 소름이 끼쳤다. 가루로 만들겠다는 것은 성 안의 성민들을 모두 몰살하고 건물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응징의 표현이었다. 빈두사라왕의 보복전은 이전에도 잔인했다.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산목숨은 남아나지 못했다. 어린 아이, 노인, 여자할 것 없이 참혹하게 살해했다. 20대 중반의 선봉장이 왕의 군막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대왕이시여, 부르셨사옵니까?"

"여기 산악까지 행군하느라 수고 많았소. 큰 사고 없이 이곳에 당도한 것은 선봉장의 공이 크오. 오늘 오후 늦은 시각에 탁실라를 공격할 것이오."

"명령만 내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선봉장으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두에서 돌진하겠사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만도 선봉장의 공이 크니 이번에는 내가 선봉에 나서겠소."

칼라따까 옆에 있던 선봉장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다.

"아니 되옵니다. 대왕께서 다치시기라도 한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옵니다. 그러니 소장이 선봉에 서야 하옵니다."

"군사들은 크게 지쳐 있소. 이럴 때는 왕이 공격의 선봉에 서야만 사기가 오르는 법이오."

빈두사라가 손을 크게 저으며 말하자 선봉장은 다시 무릎걸음으로 칼라따까 옆으로 돌아갔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코끼리 부대가 성 안에 먼저 입성해 진압할 것이니 선봉장은 뒤따라 들어와 도망치는 반란군 일당을 소탕하시오. 샅샅이 수색하여 반드시 반란수괴를 생포하시오. 수괴의 칼도 찾아오시오. 큰 상을 내리겠소. 나는 수괴의 칼로 반란수괴와 일당을 한 사람씩 목을 쳐 죽일 것이오. 피는 피로 다스려야 한다고 일찍이 선왕의 대신 까우띨리야로부터 배웠소."

짜나꺄 또는 비슈누굽따로 불리었던 까우띨리야는 선왕 찬드라굽따의 대신이었다. 사실 그는 찬드라굽따의 스승 같은 존재였다. 마우리아족의 삡팔라바나국에서 탁실라로 도망쳐 와서 목동 우두머리가 된 찬드라굽따를 발탁하여 제왕학을 가르친 브라흐민이기 때문이었다. 천민 출신의 마하빠드마가 세운 난다왕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당시 동서양문화의 중심지였던 탁실라에서 여러 학문을 수학한 대학자였다. 난다왕국의 신하들에게 멸시를 받기까지 했던 그는 통치술과 의술, 천문학과 점성술에 달통한 대학자로서 목동들의 우두머리 찬드라굽따를 앞세워 난다왕조의 전복을 꿈꾼 이상가이기도 했다.

찬드라굽따와 의기투합한 또 한 명의 인물은 장수 짜라나비슈누였다. 청년 찬드라굽따가 탁실라를 점령한 마케도니아 대왕인 알렉산더 진영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런데 찬드라굽따는 알렉산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하옥됐다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지고 말았다. 알렉산더대왕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다. 까우띨리야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예언한 바를 알렉산더 신하들에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알렉산더는 수년 안에 탁실라를 떠날 수밖에 없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병사하리라는 예언을 퍼뜨리고 다녔던 것이다. 이는 알렉산더가 거느린 동방원정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까우띨리야의 은밀한 심리전이었다.

이때, 감옥에 갇힌 찬드라굽따를 구출해준 인물이 바로 장수 짜라나비슈누였다. 그 역시도 알렉산더의 부하가 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탁실라의 해방을 꿈꾸었던 청년 장수였다. 그는 한밤중에 옥문지기를 단칼에 죽이고 찬드라굽따를 구출한 공로에다 난다왕국을 무너뜨릴 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군을 물리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소국의 왕들을 설득시킨 인물이었다. 그



래서 소국의 왕들은 그를 덕행으로 찬드라굽따의 대업(大業)을 도운 인물이라 하여 짜라나비슈누라고 불렀다.

아무튼 탁실라 출신의 까우띨리야는 브라흐민이었고, 삡팔라바나국에서 온 찬드라굽따는 끄샤뜨리야였다. 두 사람은 천민 계급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어 바로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 대국인 마가다왕국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천민이 세운 난다왕국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이다. 난다왕국을 세운 수드라 출신의 천민 마하빠드마의 부하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빈두사라 친위대 코끼리 부대는 탁실라 성으로 거침없이 돌진했다. 기마부대를 앞세운 알렉산더의 동방원정군을 여지없이 격퇴시켰던 코끼리 부대의 공격이었다. 바위덩어리가 구르듯 거대한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곳은 쑥대밭이 되었다. 알렉산더가 남기고 간 반란군의 장창(長槍)은 코끼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장창을 든 군사들은 코끼리에게 밟히어 배가 터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다. 코끼리를 탄 빈두사라는 선두에서 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반란자들을 처단하라!"

친위대를 뒤따르는 빈두사라의 군사는 성 안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 숨어 있는 성민들을 불태워 죽였다. 손을 들고 나오는 성민들도 가차 없이 살해했다. 살육전은 초승달이 뜰 무렵까지 극에 달했다. 탁실라 거리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 빈두사라는 자신의 존재를 잔인함으로 증명하듯 군사들을 지휘했다. 반란수괴가 벌이고 있던 연회장은 피의 난장판으로 바뀌었다.

"시신의 목을 잘라 광장에 쌓아두라. 탁실라의 귀신도 두려움에 떨게 하라."

초승달이 지고 나서야 빈두사라는 살육을 멈추었다. 선봉장이 빈두사라에게 보고했다.

"대왕이시여, 반란수괴를 아직 생포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는 길에 군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을 것이옵니다."

"반란수괴를 잡을 때까지 나는 탁실라의 반란자들을 죽일 것이니라. 날이 샐 때까지 더욱 철저히 수색해서 체포하라."

"예, 명령대로 하겠사옵니다."

자정 무렵이었다. 다르마는 왕비군막에서 피냄새를 풍기는 빈두사라를 맞이했다. 빈두사라의 갑옷과 투구는 온통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다르마는 두려움에 떨었다. 빈두사라가 항아리 물에 손을 씻고는 말했다.

"반란수괴를 생포했어야 단잠을 잘 텐데 몹시 아쉽소."

빈두사라가 차고 있는 칼집도 피가 번져 숫제 붉었다. 빈두사라가 갑자기 다르마의 볼록한 배를 만지며 말했다.

"왕자는 잘 있소?"

"왕자가 놀란 것 같아요."

"다르마가 놀란 것 아니오?"

"왕자가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 놀라면 그렇답니다."

빈두사라는 꼬무락거리는 생명이 아니라 단단한 나무토막을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빈두사라가 손을 떼면서 말했다.

"왕자가 이럴 때도 있소?"

"어제 보았던 대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허허허."

빈두사라는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왕비군막을 나갔다. 나가면서 한 마디 했다.

"내일부터는 탁실라로 들어가니 고생을 덜 할 것이오."

다르마는 한 마디 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그러나 그 한 마디는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손에 피를 묻히어 왕자가 더 이상 놀라지 않게 해줘요.'

다르마는 탁실라로 따라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피 묻은 갑옷을 입은 빈두사라의 잔영이 사라지지 않아 밤새 진저리를 쳤다. 이윽고 다르마는 침상에 앉아서 뱃속의 왕자가 평화로운 빠딸리뿌뜨라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피로 얼룩진 반란의 땅에서 태어난다면 왕자에게도 결코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날카로운 까마귀 울음소리가 기도를 방해했다. 락슈미띳사가 왕비군막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왕자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딱딱한 나무토막 같았어."

"지금은요?"

"발로 나를 툭툭 차고 그래. 락슈미띳사를 보니 기분이 더 좋은가 봐."

"경계병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반란군을 진압했다고 해요."

"대왕님이 말씀하셨어. 오늘은 탁실라로 들어간대. 그러니 궁녀들에게 전해줘. 가져온 물품들을 잘 챙기라고."

그때 군수부대 장수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동한다, 탁실라 성으로!"

군수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었다. 코끼리가 이끄는 수레 등을 이용해 군수물자를 나르는 부대였다. 후방을 방어하면서 군수물자를 전투부대에 공급하는 것이 군수부대의 주요임무였다. 군수부대 군사가 이동하려고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왕비가 탄 코끼리를 앞뒤에서 호위하는 임시친위대가 먼저 움직였다. 임시친위대는 허리에 긴 칼을 두 개나 찬 군수부대 정예 군사들이었다. 날씨는 빠딸리뿌뜨라와 흡사했다. 산등성이 곳곳에 피어난 분홍빛깔의 살구꽃이 더 없이 화사했다. 소와 양들은 파릇하게 막 돋아난 풀들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다. 다르마는 가마 창을 활짝 열고 이른 봄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러나 탁실라에 도착하자 목가적인 풍경은 살벌하게 돌변했다. 시신이 타는 누린내와 불타는 건물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직도 반란군을 색출하는 작전은 덜 끝난 것 같았다. 빈두사라가 묵는 행궁만 온전할 뿐 대부분의 건물은 지진이 난 듯 불타버렸거나 무너져 있었다. 다르마는 빈두사라를 보고 또 놀랐다. 빈두사라의 두 손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❺ 〈금강경〉과 선 (上)



▶ 한줄 요약
마음법 경전 〈금강경〉, 마음법 수행 '선'

말 아닌 행의 가르침, 〈금강경〉

부처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은 다 귀중하다. 좋고 나쁜 경전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불자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독송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심지어 불립문자를 내세우는 선종에서도 소의경전으로 삼았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도 〈금강경〉이다.

〈금강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금강(金剛)' 은 인도말 '바즈라' 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벼락' 또는 '금강석' 을 말한다. 벼락 같이 번뇌망상을 부숴버린다. 또는 금강석 같이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 중의 보석인 다이아몬드를 상징한다. 반야는 '바즈라' 로 지혜를 말한다. 금강 반야는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 다. 바라밀은 '파라미타' 로 욕망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 세계의 저 언덕으로 건너감이다. 경(經)은 지름길이며, 부처님 말씀을 말한다. 그러니 〈금강경〉이란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금강경〉의 역사

〈금강경〉은 본래 독립된 경전이 아니었다. 팔만대장경 중 가장 많은 분량의 반야부 600권 중 577권의 한 대목이었는데, 워낙 뜻이 깊고 고준하여 한 권의 독립된 경전으로 편찬하여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하였다. 대승불교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일대기 중에 반야부 경전을 설한 시기가 가장 오래 되어 그 분량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남방 상좌부 승가에서는 팔리어 니까야 〈아함경〉만을 부처님 친설로 보고 그 나머지 반야부나 법화, 화엄의 대승 경전은 아직도 부처님 설법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금강경〉은 남방에서는 산스크리트어경만 남아 있고, 북방으로 와서 구마라집(344~413)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널리 읽혔다. 후대에 현장(602~664)법사가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하였지만, 구마라습 번역본이 의역과 축약을 통해 읽기가 좋아 대중들이 선호하여 정착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공부하기 편하게 32분으로 나누고 그 핵심을 소제목으로 붙여 편찬하니 더 공부하기가 좋아졌다. 이것은 분명 남방불교 상좌부승가의 흐름과는 다른 불경 연구의 발전이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초기 500년 동안에는 유식 법상종과 천태, 화엄종이 주류가 되어 〈법화경〉과 〈화엄경〉, 그리고 〈열반경〉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금강경〉과 '동산법문'의 등장

그런데,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경이 구마라집 이후 창의적 한문 역경이 이루어지고 동아시아 불교에서 법상종과 천태종, 화엄종 같이 새로운 사상과 종파가 등장하면서 불교 사상이 더 다양하게 발전한다.



서울 조계사 〈금강경〉 봉안법회의 모습. 선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은 부처님의 삶속 행으로 법이 드러남을 알려준다.

7세기 중엽 당나라시대에 이르면, 양자강 근처 홍매현 동산이라는 곳에 홍인대사가 문하에 1천여 대중과 함께 〈금강경〉 한 권으로 단박에 부처되는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동산(東山)법문' 의 출현이다.

이 동산법문은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새로운 전환이었다. 지금까지 불교는 일반 대중은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거나 베껴쓰면서 부처님 이름을 부르거나 다라니를 염송하며 부처님께 복을 빌어 무병장수와 복 받기, 그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극히 일부 교학승만이 방대한 경전에 의지하여 마음을 닦아 부처가 되는 공부를 했다. 하지만, 동산에서 오조홍인대사의 법문은 오직 〈금강경〉 한 권으로 바로 부처되는 돈오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저 남방에 살던 무지한 나무꾼 혜능이 우연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응무소주 이생기심)"는 〈금강경〉 사구게를 듣고 신심이 나서 부처가 되고자 동산으로 가서 출가한다. 그는 단지 8개월 행자 생활 중에 홍인대사가 읽어주는 〈금강경〉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확철대오하여 선종의 6조로 인가를 받는다. 〈금강경〉과 함께 선종의 6조 혜능대사의 출현은 동아시아 불교사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당나라 후기에 이르면 혜능대사의 돈오선법이 선종의 주류가 된다. 이와 함께 선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으로 정립되었고, 육조도 〈금강경〉을 해설한 구결이 전한다.

오조 홍인, 〈금강경〉 돈오 밝혀
육조 혜능, 〈금강경〉 해설 전해
행으로 법을 드러낸 특징 보여
마음을 깨치고 생로병사 해탈

〈금강경〉과 선에 대한 오해와 정견

우리 시대의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금강경강해〉라는 저서에서 "〈금강경〉과 선종은 역사적으로 일푼어치의 직접적 관련도 없다"며 "선이란 본시, 이전의 일체의 교학불교를 부정하는데서 생겨난 불립문자, 직지인심의 아주 래디칼한 토착적 운동이고 보면, 선은 문자로 쓰인 모든 경전을 부정하는 일종의 반불교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선을 비판하고 〈금강경〉과 선의 관련을 부정하였다.

이 시대에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이름난 명문대 교수를 지냈고, 방송국에서 수시로 고전과 불교 경전 강의를 하여 아마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준열하게 선을 비판하니 이런 영향을 받은 우리 불자들이나 인문학도들은 대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 더구나 이 책의 서문을 법정 스님이 쓰셨으니 이 책의 위상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필자는 비록 아는 것이 부족하고 한정된 지면이나 현대불교신문의 좋은 인연을 만나 이 지면을 통해서 선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견해를 살피고 그런 인식의 문제와 오해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이미 선종의 육조 혜능대사가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쳤고, 선종의 소의경전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올은 어째서 〈금강경〉과 선의 관계를 부정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금강경〉의 말 없는 설법과 선

선종의 소의경전 〈금강경〉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천이백오십 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발우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금강경〉의 시작은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단지 비구들과 차례대로 걸식하여 공양하고 씻고 자리를 펴고 앉는 일상의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당신의 일상을 통하여 깨달음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선문에서는 〈금강경〉의 이 대목을 부처님이 말 한 마디 없이 오직 행으로 평상심이 도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최상승 법문으로 평한다.

여기에는 왕자로 태어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부처님이 출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다시 부귀영화가 보장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걸식과 무소유의 수행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째서 부처님은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의 삶을 사셨을까?

우리는 부처님 팔만대장경 속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감동하지만, 부처님께서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된 왕의 길을 버리고 평생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법을 설하셨다는 이 거룩한 행이야말로 경전의 그 어떤 설법보다도 숭고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

이와 같이 〈금강경〉에는 부처님이 평상시 삶의 모습을 통해 말이 아닌 행으로 법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말과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마음을 바로 보라는 선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중도는 말이나 문자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머리의 이해만으로 과연 금수저가 평생 무수저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금강경〉의 이 대목은 선에서 왜 말과 문자를 떠나 마음을 바로 깨치는 길을 강조하는 지 짐작하게 한다. 불교 공부에서는 말과 문자로 된 경전이나 조사어록 공부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행이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려면 말과 문자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깨쳐야 한다. 즉, 스스로 자기 안의 탐진치 삼독심을 완전히 소멸해야 한다. 삼독심을 비우는 것이 어찌 말과 문자로 되는 일인가?

마음을 깨치면 어떻게 되는가? 부처님은 평생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세상 그 어떤 부자와 권력자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해탈한 대자유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역력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불제자라면 〈금강경〉 첫 머리의 부처님이 깨치신 후 평생 걸식으로 하루 한 끼를 드시며 무소유의 공동체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삶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가난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갈지라도, 집도 차도 없이 겨우 방 한 칸의 삶을 살지라도 큰 병을 만나고 늙어서 걷기조차 힘들지라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평생 걸식으로 한 끼를 드시고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떠올려 보자! 부처님께서도 병고에 시달렸고, 상한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셨을지라도 병의 괴로움에 머무시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셨음을 기억해보자. 〈불교인재원 교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교육 3개월과정(제60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교육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교육기간 : 2021년 3월 11일부터 3개월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화 질의 상담으로 지도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문자 접수 가능)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net FAX : 02)737-5305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❺ 〈석보상절〉 3권 싯달타 태자



▶ 한줄요약

〈석보상절〉 1, 2권은 없지만 〈월인석보〉에 준하여 스토리텔링을 유추할 수 있다. 〈석보상절〉의 3권은 정반왕이 아사타 선인을 불러 태자의 관상을 보게 한 일화부터 싯달타 태자의 가계 등이 담겨 있다.

싯달타, 부처될 예언을 받다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1, 2권 전해지지 않아
월인석보에 준해 스토리 짐작해
아사타 선인 예언 · 가족 관계 등
석보상절 3권 싯달타 출생 담아

전하지 않는 1, 2권의 내용

드디어 본격적으로 〈석보상절〉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동안은 〈석보상절〉 1권이 전하지 않아 〈월인석보〉에 전해지는 〈석보상절〉의 서문을 읽어보았다. 현재 〈석보상절〉 1, 2권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월인석보〉 1, 2권이 전해져 그에 준해 〈석보상절〉의 스토리텔링을 짐작해 볼뿐이다. 〈월인석보〉 1권은 〈월인천강지곡〉 1장부터 11장까지 실려 있고 〈석보상절〉은 고타마 붓다의 전생이야기, 선혜와 구이가 석가모니와 야수다라의 전생 부부였다는 이야기, 불교의 세계관과 우주관, 시간과, 인류의 탄생과 모계 사회 출현, 삼세 부처님의 명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2권은 〈월인천강지곡〉 12장부터 29장까지 실려 있고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가계와 석가모니 임신 이야기, 마야부인의 출산과 탄생의 상서, 탄생 시기의 중국 이야기, 재동제군 교화와 도교의 불교귀의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월인석보〉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하여 수정보완한 책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만 얼마만큼 다르거나 중복되는지는 석보상절 원본이 발견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반왕이 관상가를 부르다

정반왕이 태자의 상(相)을 볼 사람 오백명을 대보전(大寶殿)에 모아 태자를 보이시니 모두 사뢰었다.

"출가하시면 성불하시고 집에 계시면 전륜왕이 되실 것입니다."

(성불은 부처의 도리를 이루는 것이다)

또 사뢰었다.

"향산의 아사타 선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 선인이 즉시 허공에서 날아 오거늘 왕이 태자 데리고 나오셔서 무릎 꿇으려 하셨다.

아사타가 두렵사리 말리면서 사뢰었다.

"삼계 가운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합장하여 절을 올리고 울거늘, 왕이 두려워 하며 '어찌 우는가' 하시니 〈아사타 선인이〉 사뢰었다.

"태자께서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갖추시니 마땅히 출가하셔서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나는 늙어 그때는 이미 무상천으로 가 있을 것이니 법화를 미처 보지 못할 것이므로 우는 것입니다.(그때 아사타의 나이 백스물이었다. 법화(法化)는 부처께서 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시어 사나운 사람이 어질게 되는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관상가 500명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 갓 태어난 왕자의 관상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아사타 선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훼손되었는데 이렇게 풀이한 것은 〈석가씨보〉와 〈과거현재인과경〉의 같은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살펴보면 '향산에 아사타 선인이 다섯 가지 신통을 갖춘 훌륭한 분인데 관상을 보고 싶어하는 정반왕의 마음을 알고 허공에서 날아왔다는 것(香山大仙阿私陀者°具五神通能斷王疑°彼仙應念騰空到宮)' 이다. 그러므로 '아사타 선인'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축원하니 정반왕이 직접 만나 태자의 미래를 묻고 싶어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불본행집경〉 권7에도 아사타 선인이 '오욕을 버리고 참다운 아라한이라 공경하고 섬겼다' 고 하는 내용이 있어 방증이 된다.

그 아사타 선인이 태자가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갖추어 부처가 되실 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이미 120살이라 그 모습을 살아서 뵙지 못할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괄호로 표시한 내용이 훈민정음 사전에 해당하는 '협주' 이다. 출가하시면 성불한다고 하면서 성불의 뜻이 '부처의 도리를 이루는 것' 이라 쉬운 표현으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 왠지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를 언제부터인가 '안녕하세요' 인사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석보상절〉이 전하는 '부처의 도리를 이루십시오' 라고 정성을 다해 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통의 관상가는 태자의 관상을 부처와 전륜왕 두 가지로 예언을 하였으나 아사타 선인은 바로 부처가 되실 것을 알고 '법화' 를 입지 못할 것을 슬퍼한다. '법화(法化)' 는 훈민정음 사전에서 '부처께서 큰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사나운 사람이 어질게 되는 것' 이라 정의한다. 이것이 불교의 교화인 것이다. 사나운 사람이 어질게 되는 것. '어질다' 는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 는 뜻이다. 이렇게 〈석보상절〉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모국어의 깊이를 새롭게 음미하게 된다.

태자의 이름 살바실달

태자 태어나신 지 이레째인 사월 보름날 마야부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으로 가시니 오만 범천梵天은 보병 잡고 이만 마처(魔妻)는 보루(寶縷)를 잡아 호위하였다.(보병(寶甁)은 보배로 된 병이다. 마처는 귀신의 아내요 보루는 보배로 만든 실이다)

태자가 태어난 지 1주일만에 어머니 마야부인이 별세한다. 가는 곳은 도리천이다. 선덕여왕이 임종하며 도리천에 장사지내란 한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5만 명의 범천과 2만 명의 마처가 보배로운 병과 실을 들고 마야부인 가는 길을 호위한다. 마처를 귀신의 아내들이라 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호위 신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왕이 바라문을 많이 청하시고 태자를 안고 나가셔서 이름짓게 하시니 모두 사뢰었다.

"태어나실 적에 길하고 경사스러운 상서가 많으시니 이름을 살바실달이라 하시지요.(살바실달은 가장 좋다 하는 말이다)"

허공에서 천신이 북치고 향피우며 꽃을 뿌리고 말하였다.(천신은 하늘의 신령이다)

"좋으십니다."

그렇게 마야부인을 떠나보내고 어린 태자를 위한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우선 정반왕은 아들의 이름부터 바라문을 청하여 짓는다. 길하고 상서로운 경사가 일어난 태자 탄생에 좋은 의미를 담는다. '살바실달(薩婆悉達)' 은 'Sarvasiddhārtha' 를 음사한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상의 의미(一切義成 · 一切事成)이다. 그러니 가장 좋다는 말이 된다. 훈민정음 사전 풀이는 볼수록 무릎을 치게 되는 불교초심자용 설명이다. 그 이름에 다시 천신들의 동의와 축하가 이어진다.

양어머니 대애도, 마하 파사파제

한 신하가 왕께 사뢰었다.

"태자가 어리시니 누구에게 기르도록 하시겠습니까. 오직 대애도 부인이어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대애도는 가장 도리를 사랑한다는 뜻이니 서천(인도) 말로는 마하 파사파제니 난타의 어머님이시다)

왕이 대애도에게 가서서 '젖먹여 기르라' 하시니 대애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자 살바실달의 양육을 마야부인의 언니 대애도에게 맡긴다. 대애도는 가장 도리를 사랑한다는 뜻 그대로 인도 말로 마하파사파제(Mahāprajāpatī)이다. 동생으로도 나오지만 〈석보상절〉 6권에서는 언니가 용모가 마야부인만 못해 둘째부인이 되었다는 주석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이 설명에 웃음이 나온다. 대애도는 나중에 난타의 어머니가 되니 싯달타와 난타는 이복형제가 된다. 그렇게 이모이자 어머니가 된 대애도는 싯달타 태자를 양육하게 된다.

태자의 두 번째 이름 천중천

왕이 대애도에게 말씀하셨다.

"태자 모시고 가 천신제하는 데 절하게 하시오."

하고 가시는데 군신과 채녀, 제천이 풍악을 울리며 따라 갔다.

하늘 제사하는 데 가시니 만들어진 상(像)들이 모두 일어나 태자에게 절하며 사뢰었다.

"태자는 천인 가운데 가장 존귀하시니 어찌 우리에게 와서 절하려 하십니까." (천인(天人) 중(中)은 하늘 사람 가운데라는 말이다)

왕이 놀라 찬탄하며 이르셨다.

"내 아들이 천신 가운데 가장 존귀하니 이름을 천중천이라 하여라."

(천중천은 하늘의 하늘이니 부처의 둘째 이름이시다. 하늘제하는 데 가실 때 부처의 나이 세 살이니 주나라 소(昭)왕 28년 병진(丙辰)이다)

정반왕은 태자를 천신제에 데려가게 하는데 천신들이 태자에게 오히려 모두 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태자가 천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오히려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 태자는 '하늘 가운데 하늘' 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때가 중국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나라 소왕 28년은 기원전 1024년이 된다.

이 내용에 대한 게송이라 할 수 있는 월인천강지곡은 30장부터 32장에 해당한다. 그 월인천강지곡은 다음 이야기에서 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석보상절은 월인천강지곡의 게송이 뒤따르는 불교경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사타선인의 말대로 태자가 출가하게 될까 걱정하는 정반왕의 노심초사가 그려진다. 인도의 계절에 맞춘 세 개의 궁궐을 짓고 풍류 잘하는 아름다운 처녀 500명으로 모시게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기대하시라.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❸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 한줄 요약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수감중이다. 삶 자체가 불교적 수행의 연속인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멈추질 않길 바란다.

佛心으로 민주화 이끈 미얀마 어머니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월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다. 미얀마 복귀를 기다리던 나에게 백신 공급은 한 줄기의 희망이었다. 2021년도는 미얀마로 복귀해 코로나로 못 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 새벽 3시 역병보다도 무서운 '권력욕'에 의한 쿠데타가 미얀마에 발생했다. 아웅산수지(Aung San Suu Kyi) 국가고문, 우윈민(U Win Myint)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 많은 장관들과 정치인들이 수감되어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총사령관은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의 정치 제기를 막기 위해 이유 없는 재판을 준비 중이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의 개인비서인 우쪼나잉윈(U Zaw Naing Win)에게 현대불교신문 연재에 관해 요청할 예정이었는데, 그는 지금 어디로 끌려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수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88년도와 같이 '미얀마 민주화'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석방'을 외치고 있다. 아웅산수지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불자(佛者)'가 아니라고 오인 받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미얀마 사람다운 불자이다. 아웅산수지가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에 나섰을 때 군부정권은 그녀를 '불교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소문을 퍼트렸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불교적 신념에 근거해 비폭력을 통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왔다.



스님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는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달라이라마와 함께한 모습.

미얀마 정치전통에 따른 아웅산 수지의 행보

이러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였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미얀마 승단의 환영을 받았다. 군부의 보시는 거부하는 스님들이 아웅산수지의 보시물은 승낙을 하였고, 그녀가 연설하는 곳마다 미얀마 스님들은 방문하여 그녀에게 암묵적인 힘이 되어주었다. 미얀마 역사를 살펴보면 미얀마 승단은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 왔다. 왕은 자신의 신심만큼 승단의 보시를 했으며, 스님들은 불교적인 의식과 법회를 통해 왕에게 미얀마 왕으로써 정통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적 관습이 현대의 흐름에 맞춰 형태만 변화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도 미얀마 정치문화에 남아 있다.

미얀마 왕조의 정치전통에서 왕은 국사로 임명된 스님에게서 정치적인 조언을 얻었다. 그녀가 민주화 운동기간 동안 스님들에게서 정치적인 조언을 들은 것은 과거 정치전통이 미얀마 현대 정치에도 적용된 것이다. 전국을 도는 첫 유세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갈 때마다 많은 스님들을 만나서 민주화 운동에 관한 충고를 얻었다. 삐라는 지역에서 만난 스님은 수지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혼자서만 빨리 해탈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많은 고행의 삶을 산 수행자 수메다를 항상 기억하라. 선과 정의를 이루려면 오랜 세월 고행을 감내해야 한다."

비폭력 민주화 운동의 근원은 자비

스님들의 이러한 조언 때문이었을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 있었을 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했다. 어떤 사람들은 '군부를 향해 폭력으로 맞서 싸웠다면 미얀마의 민주화를 좀더 빨리 이룩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비폭력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웅산 수지의 불교적 신념이 큰 영향을 주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억압적인 사회에서 잠자코 노예로 사는 안전한 삶보다는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확신하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운동이 비폭력 운동인 까닭은 인간의 본성이 공정함과 자비심을 애호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나는 폭력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방법을 권장하거나 영속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폭력을 써도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없애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낸 바로 그 방법이 늘 우리를 위협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룬다면, 민주화 운동에 줄곧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현재 감금 삶 자체가 불교적 수행의 연장선 스님들, 군부 보시는 거부한 반면 수지 고문의 보시는 받아들이기도

골수분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저들이 체제를 바꾼 건 폭력을 통해서였다. 우리가 저들이 행사한 폭력보다 더 우월한 수단을 강구한다면 권력을 도로 빼앗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게는 비폭력주의가 정신적 신앙인만큼 정치적 전략이기도 한 겁니다. 폭력은 옳은 길이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강력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불교를 바탕으로 이끈 미얀마의 민주화는 성공적으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폭력에 의해 불교 사상의 가치들이 무력화되면서 현실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것일까? 아웅산수지가 국가고문이 되고 난 후, 군인들을 법으로 심판해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것에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녀의 불교적 사상 또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미얀마 국민들이 군인들을 '나쁜 악마'로 취급하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점을 부처님과 앙굴리말라의 일화에 빗대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국민들에게 사람 자체보다도 그가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앙굴리말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여전히 끔찍한 것이었지만, 부처님 자신은 그가 저지른 행위와 그를 분리해서 보셨다는 내용이었지요. 일단 앙굴리말라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잘못이고 진짜로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옳은 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신 첫 사람이었지요."

아웅산수지는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자비경〉을 매일 독송하고,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화요일마다 본인의 나이만큼 염주를 돌리는 수행을 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그림 애호가이기도 하다. 자신과 친한 미얀마 화가에게 그림 속에 타인들은 눈치 채지 못하게 불교 경전 구절을 넣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자신의 삶에서 행동을 통해 보여주려고 한다. 2021년 2월 1일부터 가택구금을 당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미얀마 국민들의 믿음이 있다. 오랫동안 가택연금을 당할 때 함께 한 불교 수행이 그녀를 지탱해 줄 거라 믿기 때문이다.

군부가 민주화를 억압하기 위해 든 총과 칼에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화"라는 단일한 가치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연대하며 지지하고 있다. 시위를 하던 중 무자비하게 총을 쏘는 군경들을 피해 모르는 사람 집에 찾아가 몸을 숨기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음식을 시위대와 함께 나눠 먹으며 자비심으로 연대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보니 아웅산 수지가 예전에 했던 발언이 떠오른다.

"우리 국민은 종교와 관련된 말을 잘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자비)'를 말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야 말로 실천적인 선의(善意)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봐요. 나는 NLD에게 항상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온갖 무기와 협박과 억압에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고요. 아마도 '저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뭔가가 있긴 있어.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말하겠지요."

삶 자체가 불교적 수행의 연속인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멈추질 않길 바란다. 불자 정치인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세상에 울림을 주기를 기대하며, 복귀를 기다려보자.

〈양곤대 박사과정〉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보살의 길 가야 부처 된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⑩ 일미평등법(一味平等法)

"나는 일체를 모두 평등하게 보며 이것은 사랑하고 저것은 미워하는 일이 없으며, 탐착이 없고 한쪽에 치우쳐 걸리는 일 없이 언제나 일체중생을 위하여 평등하게 법을 설하느니라, 한 사람 위하듯이 여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느니라. 항상 법을 설하는 일 외에 다른 일 없으며, 가건 오건 앉건 서건 지칠 줄을 모르고, 세상을 채워주는 것이 비가 만물을 적시듯 하여 귀하고 천하거나 신분이 높고 낮거나 계를 잘 지키거나 계를 훼손하거나 위의를 갖춘 자이거나 못 갖춘 자이거나 정견 · 사견과 이근(利根) · 둔근(鈍根)에 똑같이 법의 비를 내려주느니라.

온갖 중생이 나의 법을 들은 자는 능력에 따라 여러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 인간 세상의 사람과 천신이거나 전륜성왕과 제석과 범천의 왕이 되는 것은 작은 약초요, 무루법을 알아서 열반을 얻으며 육신통을 일으켜서 삼명(三明)을 얻거나, 홀로 산림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아 연각을 얻는 것은 중간 약초요, 세존이 있는 곳을 찾아서 '내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여 정진, 선정 닦는 것은 최상의 약초이니라.

또 여러 불자들이 불도에 전념하여 항상 자비를 실천하여 스스로 부처 될 줄 알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작은 나무요, 신통에 안주하여 불퇴전의 법륜을 굴려서 한량없는 백천 억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보살은 큰 나무이니라. 부처님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는 것은 하나로 내리는 비와 같고 중생이 성품 따라 받는 바가 다른 것은 초목들이 빗물을 흡수하는 것이 다른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이 이 비유로 방편의 문을 열어 보여 가지가지 말을 하여 한 법을 설하나니, 부처님 지혜에선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내가 법우를 내려 세상을 채워서 일미의 법을 능력 따라 받아 닦고 행하는 것이 저 숲의 약초와 여러 나무들이 큰 것은 큰 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자라서 무성해지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들 가르침은 언제나 한 맛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루 갖추어 점차로 수행하여 모두 도의 열매를 얻도록 하느니라.

성문 · 연각이 산림에 살며 최후신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과를 얻는 것은 약초가 제각기 자라는 것과 같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의 이치를 통달해서 최상승법을 구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고, 다시 선정에 머물러 신통력을 얻고 제법의 공한 이치 듣고 마음에 크게 기뻐해 무수한 광명을 놓아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 가섭아, 부처가 법을 설하는 것은 큰 구름이 똑같은 한 맛의 비를 내려 사람의 꽃을 적셔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가섭아, 잘 알아라. 여러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써 부처의 도를 열어 보인 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최상의 가장 진실한 것을 말하리니, 성문들은 모두 완전한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행할 것은 보살의 도이니 점점 닦아 배우면 모두 다 부처가 될 것이니라."

〈약초유품〉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이 대목은 부처님 설법이 차별 없는 일미평등법(一味平等法)임을 말하고, 보살의 수행이라야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문들의 경지가 완전한 멸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살의 도를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크고 작은 약초와 나무에 비유하여 수행의 경지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병에 따라 약품을 쓰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온갖 법이 설해지지만 법을 설하는 근본 목적은 중생이 부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일승(一乘) 곧 불승(佛乘)이다. 똑같은 비를 맞고 약초나 나무들이 종류에 따라 자라는 크기가 다르듯이 일미(一味)의 법문을 듣고 얻는 수행의 경지가 다르다는 것은 곧 법은 평등하지만 중생의 근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대승경전에서는 중생의 마음이 본래 대승(大乘)이라 한다. '대승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선언한 것은 〈대승기신론〉에서다. 〈법화경〉에서는 대승의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고 이 수행을 통해 성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생을 대승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독성 음주, 악행 근원 될 수 있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⑩ 불음주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다섯 번째인 불음주계(不飮酒戒)는 부주의를 야기하는 음주(飮酒)를 절제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 계를 앞의 네 가지 계보다 가볍게 여기며, 어떤 이는 이 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우선 기분 전환을 위해 가볍게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음주는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오히려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가 더 부자연스럽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 대체로 음주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경우는 기쁨을 만끽할 때보다 슬픔을 가라앉히거나 아픔을 잊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많은 이들이 상쾌한 기분을 얻거나 일시적이고 거짓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술에 중독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는 술뿐만 아니라 마약과 환각제 등과 같은 중독을 야기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금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독성 있는 물질을 상습적으로 복용함으로 인해 부주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음주 행위나 마약의 복용 행위가 완결되어 계를 위반하는 데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술처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이며, 둘째는 이것을 섭취하려는 의도이며, 셋째는 이것을 섭취하는 시도이며, 넷째는 실제로 이것을 섭취하는 것이다. 일부 경전에서는 병든 승려를 치료하기 위해 아주 적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것조차 금지한다. 비록 술의 양이 적을지라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중독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술이나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우리의 심신을 왜곡시켜 분별력과 경계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 행위나 마약의 복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런 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록 음주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음주 행위나 마약의 복용 행위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언가에 취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행동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취중에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누구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실한 불자라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아야 하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정신적인 명료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사물 간의 관계를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다시 말해 팔정도(八正道) 가운데 정념(正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음주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중독을 야기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늘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⑩ 고대 인도의 암기법

어떻게 경전 통째로 암송했을까?

현재에도 인도인들은 뛰어난 암기능력으로 주목받는다. 어떤 인도 어린이는 힌두 경전인 바가바드기타(Bhagavad-gita) 정도는 통째로 외운다. 석가모니 당시에는 그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방대한 문학들이 존재했는데, 그것들 대부분은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불경도 처음에는 그렇게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석가모니 시대 이전인 베다 시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양상은 조금 달라진다. 베다 문헌들은 불경과는 달리 대체로 '한 구절도 어긋나게 암기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신의 계시 문학이었다. 따라서 당대의 베다 지식인들은 그 경전 구절을 정확히 암기할 수 있는 특정한 암기법을 고안해냈다.

문자가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경전을 통째로 암송한다는 것은 원래의 단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학습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스승이나 아버지는 제자나 아들에게 무조건 자신을 따라 암송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민한 아이는 그것을 즉시 흉내내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암기해 낼 수 있다. 암송을 통해서 리그베다의 내용들을 전승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 한국 학생이 영어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외국어 팝송의 '소리'만을 멋지게 따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 팝송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말이다. 퀸(Qeen)의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를 리그베다의 한 구절이라고 생각해보자.

"마마 젓스킬더맨 푸러건어겐씨셋"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기록하지 않고 소리만 들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노래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베다를 의례상황에서 실제 발성할 때는 본래의 각각의 단어들이 뭉쳐 흐르면서 덩어리 음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문장 형태를 상히따-빠타(saṃhitā-pāṭha)라 부른다. 상히따-빠타는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가사는 "마마 저쓰킬더맨 푸러건어겐히데"와 같이 발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소리내 외워서 전승해야할 학생들은 잘 외울 뿐만 아니라, 이 덩어리 음들이 본래 각각 무슨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그 덩어리 음들을 잘라서 암송할 때의 흐름에서 떼어내 각각 따로 따로 발음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래의 문장형태와 의미를 나중에라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보헤미안 랩소디 가사는 "마마 저스트 킬드 어 맨, 어 건 어개인스트 히스 헤드"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빠다-빠타(pada-pāṭha)이다.

문자 없이 암송으로만 지식이 유통되는 사회에서, 빠다-빠타는 전승의 내용이 되고, 실제 사용형태는 상히따-빠타가 되는 셈이다. 빠다-빠타 형태의 모든 경전구절들을 음절의 손상 없이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고대 인도인들은 독특한 암기법을 고안해냈다. 이것을 비끄리띠(vikṛti) 또는 즉 문장변형방식이라고 한다. 이 비끄리띠는 문장의 단어들을 빠다-빠타 형태로 각각 분리시킨 후, 여러 방식으로 뒤섞어 문장을 만든 다음 그것을 다시 외우는 여러 형식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마 저스트 킬드 어 맨". 이것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빠다-빠타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대략 10가지 방식의 뒤섞임 방식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인 '자따' (jaṭā)-빠타는 다음과 같다.

"마마(A) 저스트(B), 저스트(B) 마마(A), 마마(A) 저스트(B), 저스트(B) 킬드(C), 킬드(C) 저스트(B), 저스트(B) 킬드(C), ..." 문장의 맨 앞 단어와 그 다음 단어를 병렬했다가(A-B) 뒤집고(B-A) 다시 원위치(A-B)시킨다. 그다음 세 번째 단어(C)가 등장하면 두 번째 단어와 이러한 방식을 반복한다. 이같이 한 문장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단어 섞음을 통해 연음의 상황에서 변화하는 단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단어의 원래 음가를 정확히 기억하도록 훈련하게 된다.

이러한 구전 문헌에 대한 보존의 집요함은 인류문명사 속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베다는 거의 3천년 동안 고스란히 전해진 구전문학의 결정체로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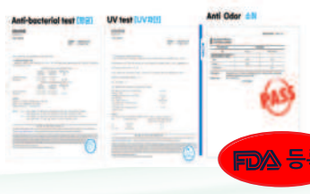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2호 | 17 | 전면광고

부처님들의 명호를 듣고 능히 외워 지닌다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팔불명호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
010-5883-2255

• • •
스님 모심
착한마음, 어진마음, 부처님마음, 마음을 지닌 비구니스님과 인연이 있으면 암자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신명을 모신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 • •
010-3132-9666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이무기(복마)를 퇴마할 수 있는 도력높은 분 계시면 전화주십시오
• • •
010-8398-1923

●●●
○ 행자승(20세 ~ 45세)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절에서 요양삼아 기도하고 소일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경기도 양평 기도영험도량 천인사
031)773-7746 , 010-8777-1775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봅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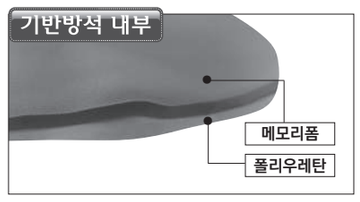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2호 | 18 | 전면광고

그대가 여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으니 태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늘
나를 만나보게 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승만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300평
◎건평 : 100평,외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매가 : 40억

◎위치 : 경남
◎종교용지 : 약1800평
◎건평 : 40평외전각
◎종교시설, 요양시설추천
◎매가 : 8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지 : 1천평, 건물 : 400평
●가액 : 39억
● 佛敎의現代化,佛法의生活化,布敎의大衆化 ● 불교컨벤션 ● 명상힐링캠프 ● 불교복지시설 ●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先導) 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55평 ●요사: 75평
●대지: 500평 ●임야: 4천평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토 지 안 내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합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가액 5억5천만원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
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지리산 작은암자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멋진토굴(급)안내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사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포 교 원 안 내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010-3714-101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
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
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매
매시 기증) ●가액:3억(대출6천만원
포함) ●전.월세가능(1억50만원)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사찰 (급) 안내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도심속 산중사찰(위치 좋음)
●법당, 삼존불, 탱화 완벽, 산신각, 현대식 요사채
●양도가 : 9,500만원(지상권), (년간 도지세 20만원)
●조용하고 경치좋은 암자, 토굴기도 비구 비구니
스님, 역학하시는 스님, 보살 최적의 장소

010-7677-8385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
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
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 찰 안 내

●위치 : 제천시 중심가
●대지 약 80평
●법당 15평
한옥요사채 30평
●수행과 포교 적합한 곳
●가액 : 1억 5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478-3234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로 전통시장 내
●2층 86평
●보증금 2천만, 월 66만원
●시설비 : 3천만

010-3508-9321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사 찰(급) 안 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
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 (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
●가액 13억 5천만원

010-6325-5112

인천 사찰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
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
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
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
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
윗길 28-17 ● 부지 : 500평(대지250
평) ● 법당(16평), 종무소(6평), 창고(4
평), 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
축), 요사채+휴게실+창고(30평), 산
신각 ● 가액 : 4억 5천 만원(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010-2042-372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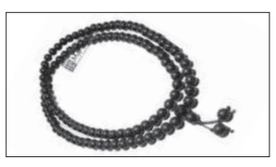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자부심을 가지세요!

불성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항상 부족함이 없고 원만해요. 무한한 가능성, 내면의 신성함을 항상 인정하세요. 절대 몸을 비하하지 말아요. 몸은 영성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요. 당신이 부처님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빛나는 참본성, 결코 잊지 마세요.

공성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실제로 있는 고통은 없어요. 모두 마음이 만드는 고통이에요. 생각과 감정의 공한 본질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마음의 놀이일 뿐, 일시적인 환영일 뿐임을 알아야 해요.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항상 공성에 자부심을 가집으로 해서 고통을 오래가고 딱딱한 현실로 만들지 마세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⑤ 백년고차

유정 무정의 정성이 차 한 편에 녹아

백 년 된 차나무는 백 년 된 찻잎의 맛을 주고 오백 년 된 차나무는 오백 년 된 찻잎의 맛을 줍니다. 나이가 오래될수록 혹시 차맛이 더 쓰거나 윤기가 없지 않을까?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차의 세계에서 나이와 차맛은 비례합니다. 고차수일수록 더 신선하고 더 감미롭고 더 윤기가 돕니다.

노자는 '도는 갓난아기와 같다' 고 말했습니다. 어려서 노자를 읽을 때에 이 말이 그리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도덕경〉 첫 페이지에서 '도가도비상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라는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을 뒤흔들었던 노자가 뒤에 가서는 고작 도는 어린아기와 같다니요, 천진난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숭고한 도의 모습 치고는 좀 맥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인이 되고 보니 '도는 갓난아기와 같다' 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신선하다' 는 말로 들리더군요. 과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선할 수 있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더 감미롭고 더 향기로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차나무는 사람의 선생님입니다.

차를 품평할 때에 품(品)이라는 글자는 참 재미있습니다. 세 개의 입(口)이 모여 차를 음미합니다. 차 한 잔을 세 번으로 나눠 음미한다는 뜻도 되고, 세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모여 차를 품평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중국 시학에서는 시를 품평하는 것을 시품이라 하고 시품은 인품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차를 만들고 우리다보면 차 한 편에도 시와 노래가 담기고 차를 만지는 사람의 성품이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차품(茶品), 시품(詩品), 인품(人品)은 서로를 닮아갑니다.

봄이면 윈난성 천연원시림 고차수 다원에 보이차를 만들러 갑니다. 찻잎을 선택하기 전에 빠지지 않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차를 품평하는 것입니다. 고차수 다원마다 열 몇 개의 찻잔을 주욱 늘어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막 만든 시음용 모차입니다. 모차를 품평하는 일은 그 해 보이차를 만들 때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요.

차는 색깔, 향기, 맛, 기운으로 품평을 합니다. 색이 맑고 영롱하면서 윤기로운지, 향기와 맛이 달고 신선하고 풍부한지, 차를 마신 후 몸으로 느끼는 기운이 살아있고 여운이 끝이 없는지 차를 음미하지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품평한 대로 차의 순위를 매겨봅니다.

그러면 영락없습니다. 거의 차나무의 수령대로 맛이 비례합니다. 보이차는 차산 환경이 같고 차를 만드는 기술이 같다는 전제 하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90프로의 요소가 찻잎 원재료의 질입니다. 찻잎 원재료는 홍토 고원의 천연원시림 차산에서 잘 자란 고차수, 수령이 오래된 고차수의 찻잎이 최상품입니다.



김종미 대표가 직접 만든 고차수 보이생차인 '백년고차'

좋은 찻잎 선택이 품질 좌우
차나무 수령이 차맛과 비례
전공정 직접 손으로 작업해

고차수는 큰 찻잎에 영양소를 농축하여 사람을 살리지요. 사람만 살리나요, 곤충도 한 잎 같이 먹지요. 이렇게 만물을 먹여 살리는 차나무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차를 만듭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마실 때에는 우물 판 사람의 공을 잊지 말아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차나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수 백 년 동안 사람들이 찻잎을 따 가져가도 나무라지 않고 아낌없이 찻잎을 내어주는 차나무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차나무를 길러 낸 푸른 하늘과 태양과 맑은 이슬과 붉은 토지에 감사합니다. 차나무를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차농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찻잎은 이른 봄에 땁니다. 우리나라는 우전차라고 해서 곡우절 전에 딴 차가 좋은 차이지만 윈난은 아열대 지역이므로 곡우보다 한 절기 앞선 청명절 즈음이 되면 봄차 생산이 벌써 한창입니다. 또한 이른 봄에 처음 차싹이 솟아나올 때 만든 차를 첫물차라고 하는데 날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3월 중하순경에 만듭니다.

백년고차는 제가 직접 만든 고차수 보이생차입니다. 이른 봄에 차의 기운이 푸릇푸릇 활발발할 때에 1아 2엽의 고차수 새싹과 찻잎을 손으로 일일이 따서 첫물차를 만들었습니다. 찻잎을 따면 행여 시들세라 바로 운반을 하죠. 해발 1600~2000m의 천연원시림 고차수 다원은 찻길이 없습니다. 인가도 없습니다. 대광주리로 찻잎을 일일이 지고 내려옵니다. 찻잎을 덖을 때에도 무쇠솥에서 사람 손으로 찻잎의 고슬고슬한 정도를 감지해가며 살짝 덖습니다. 대형차창은 회전차통에 찻잎을 넣고 기계로 돌리지만 전통 수제차는 전 공정을 장인의 손으로 일일이 직접 만듭니다. 정성 없이 이루는 일이 어디 있으랴마는 백년고차 한 편에는 산과 바람과 나무와 꽃과 수많은 무정유정의 정성들이 오케스트라처럼 모여 있습니다. 섬세하게, 정갈하게, 깐깐하게 예술작품처럼 만들어집니다.

천연원시림 고차수 차산에 가면 누구나 시인이 되나 봅니다. 차나무의 마음에 감동받고 차싹의 소근거림에 흠뻑 취하여 저도 모르게 시 한편을 짓게 되었습니다. 고차수 차나무가 내어준 한 잎 한 잎이 나의 차가 되니 차왕수의 마음을 전하는 차인이 되리라 다짐하면서요.

백년을 자라도 크지 않았네
십년이면 찻잎을 팔아대는 시장에서
이백년도 모자르다 하고
삼백년도 부족하다 하여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쏟아지는 햇살을 받는 일
조잘대는 바람을 듣는 일
삼만 육천 오백 날의 기도
칠만 삼천 하루의 기다림
꼭꼭 눌러 담아 삐져나올 때
사랑도 무게가 되어 줄기가 휠 때
비로소 찻잎 우릴 수 있는 차나무 되었네
높은 산속 천년 고차수

〈잇다it茶 대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당신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요 ❸ 자존감 살리기 마지막 단계

▶ 한줄 요약
중도수행으로 나를 사랑하면 자존감 커진다

신해행증의 자비가 바로 佛法



더 많은 위치에서 누리는 쾌감
자존감아닌 탐욕 등 축생마인드
영적 평온은 '나 돌봄'서 시작해
수행 · 실천이 자존감 상승유도

인간적인 마음상태에 머물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가요? 모두가 인간으로 보이나요? 육체적 수준에서는 우리 모두 인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세계도 인간일까요? 불교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매 순간 여섯 가지 정신세계인 육도(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를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마음은 수시로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는 세상이 육도 가운데 어디일까요? 지옥마인드는 화와 공격성으로 채워져 있고, 아귀마인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채 끊임없이 원하기만 하는 갈망, 축생마인드는 탐욕과 성욕, 아수라마인드는 질투와 편집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천상마인드는 일시적으로 에고의 작용이 멈추고 즐거움에 도취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마인드는 항상 배움에 열중하고 육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만,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육도 가운데 변화가 가능하고 영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세계는 오직 인간마인드 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간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섯 종류의 정신세계에서는 자기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더러 아예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간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상태가 인간마인드가 아닌 나머지 5도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있든, 그 곳에서 경험되는 자존감은 그 부리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작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 마인드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인간마인드의 주된 심리적 상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언인지,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진정으로 행복감과 충족감을 느끼는지 같은 삶의 진정한 가치나 의미에 대한 사유와 통찰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인간마인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마인드에 머묾으로써 나머지 정신세계의 불건강한 심리 상태에 벗어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핵심가치에 대한 의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화, 불만족, 좌절, 불안과 같은 심리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은 대개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육도를 윤회합니다. 아귀마인드에 머무는 순간에는 지치지 않고 갈망하는 심리 상태에 휩싸이고, 축생마인드에 머무는 순간에는 필요이상으로 탐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마인드에 머무는 순간에는 행복과 웰빙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신경증적인 욕구에 의해서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마인드에 머무는 순간에만 자기 잘못을 반성할 수 있고, 고통 받는 자들을 향해 연민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행복을 방해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로울 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육도 가운데 어디에 머물고 있는 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정신세계가 지옥의 화나 분노, 아귀의 끝없는 갈망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그럴 때는 일차적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고요한 자리를 찾아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잠시 명상하면서 지금껏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고 남은 세월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그대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에 머물러 봅니다. 만약 그 순간 살아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짧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할 수 있다면, 웬만한 갈등이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인간마인드에 머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명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간적인 마음의 상태, 온전한 인간마인드에 머물러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치유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화엄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어찌하여 이 모든 중생이 여래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난 직후에 중생을 바라본 소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 즉 부처님과 동일한 지혜를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기에 본질적으로 부처라는 겁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그러한 본질이 어리석음에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불성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존감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타고 났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달은 상태에서 갖게 되는 자아에 대한 이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성에 대한 믿음은 곧 자존감의 회복, 상처받은 자존감을 치유하는 지름길이고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직접 어떤 가르침이든지 무조건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보고 몸소 체험해 본 다음에 믿으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행에서 치유의 단계를 넘어서 지혜를 닦는 단계까지 가면 그 말이 옳습니다. 도에 이르는 서른 일곱 가지 수행에서 처음에는 우리의 몸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현상들의 변화와 상호의존적 발생과 소멸을 알아차리는 사념처를 닦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은 더욱 자라나게 하고, 악한 마음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인 사정근을 닦습니다. 이미 생겨난 악은 없애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잠재된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자라도록 하고, 잠재되어 있는 선은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념처와 사정근을 닦고 나면 네 가지 능력, 즉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 고요하게 사유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이 다섯 가지 뿌리인데, 첫 번째 뿌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꽤 높은 정신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분명 일정 수준의 노력과 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꼭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정갑을 잘 이해하고 알아서 답을 맞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뜻도 모르고 확신도 없지만,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그냥 외워서 답을 쓰기도 합니다.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데, 선생님이 이미 정답이라고 수업시간에 말해 주었음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답을 쓰지 않을 바보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완전하지 않지만 부처님이 우리가 다 부처라고 하니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자존감을 치유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37조도품을 닦는 것 보다 신해행증, 즉 먼저 믿고 그런 다음에 이해하고 실천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굳이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일단 무조건 내 안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 있으며 나는 부처님과 똑같이 고귀한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정답을 외워서 적을 때처럼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좋으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대승불교의 궁극의 목표는 요익중생, 즉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보시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봉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요익중생을 올바르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생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요익중생을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자리이타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롭게 하는 동시에 타자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이 수행의 최고 목표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음 또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현상적 실천적 행위가 바로 중도고, 공의 표현이고, 작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깨달음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과 타자, 세상을 유익하게 돌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의도와는 달리 자신과 세상에게 오히려 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완전하고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은 완전한 사랑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또 남이 부러워하면서 올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우월감입니다. 남이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필사적으로 투쟁해서 얻은 우월감은 그 이면에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비교나 경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자기 가치와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자존감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쉬운 예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런 단체를 꾸준하게 돕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지 않던가요?

현대인의 정신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안 증상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쟁취하는 구조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태도를 전환할 수 있다면, 자존감의 향상은 물론 불안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저자 : 김정호(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
서광 스님, 전현수(정신과 전문의)
〈불광출판사 펴냄〉





대행 스님

보살행이라는 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질문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실천 수행 방법 중의 하나로 팔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지킨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런데 이 올바르게 보는 것, 어떻게 봐야 올바르게 보는 겁니까? 이건 틀리고 이건 잘돼 있고 이런 거를 보는데 그게 올바로 보는 겁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하나를 봤을 때, 뭐,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한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 보는 것 때문에 한생각 하는 것도, 정사유도 동시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는 걸로 돌아간다.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정업, 바른 행동을 하게 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본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이랬는데 어떤 게 바르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건지,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명' 하면은 '바른 생활' 이러는데 바른 생활이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인지 난처하죠. 어떤 것이 바르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정정진, 바른 정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정진인지 줄창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른 정진이 어떤 것이 바른 정진인지 생각하시겠죠. 정념, 바른 의식입니다.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이거 불편하고 산란해서 어떻게 삽니까? 첫 번에 정견, 보는 데서 벌써 정념으로 벌써 왔습니다. 보는 데서부터, 이게 처음에 단추를 위에서 똑바로 끼우면 아래까지 똑바로 끼워지는데, 위에서 하나를 어긋나게 끼우면 밑에까지 어긋나게 끼워지죠. 그렇듯이 이게 '정념, 정정'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의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의식이, 바른 의식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거를 똑 잡아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의식입니다. 정정! 이게 정정이라는 것이 "이름 없는 그 정에 모두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다 놓고 중심을 잡아라. 물러서지 말고 거기다 놓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말보다도 이렇게 써 놓으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 하나, 보는 거 하나 잘못해서 그 밑에까지 잘못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이 수좌들 다섯이서 공양을, 예전에는 공양을 구걸하러 다닐 때가 있었죠.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보니깐 자기 외에도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곤 "넌 저렇게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나같이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 '나' 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죠. 나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있다 "게을러서 그렇다. 우리는 공부나 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저 사람네들은 공부도 하지 않는데 어째서 저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느냐.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얻으러 다니겠느냐." 하고 불쌍히 보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봤다는 사람이 옳습니까, 저건 너무 가난해서 참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또는 저건 게을러서 그렇다는 하는 게 옳습니까. 그 보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가 그렇게 뒤끝까지 잘못되게 만들죠.

그런데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어두운데 길을 바삐 가다 보니까, 아주 도둑놈이 바삐 뛰어가는 거하고 바빠서 사람이 뛰어가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데, 그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뛸까?' 하는 생각을 그냥 금방 하게 되죠. 근데 보살이 어째서 도둑이 저렇게 뛰어가는 걸 모르고 바빠서 저렇게 뛰어간다고 했느냐 이거죠, 인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듣는다면 그렇게 인정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도둑은 도둑대로 봐야 하고 바빠서 뛰는 놈은 바빠서 뛴다고 봐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겠죠. 그거 옳지 않겠죠. 그러나 보살행이라는 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도둑이든 도둑이 아니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 도둑은 도둑이 없어지죠. 무주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한생각으로서 스치기만 해도 그 무주상 보시로서 그렇게 공식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깐 무조건 둘로 보지 말고, 무조건 둘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픔도 나로 생각하고 둘로 보지 말라 이런 뜻이죠. 둘로 본다면 만약에 외부에서 내 몸에 병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둘로 돼서 싸울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도 그냥 하나가 돼 버리지 둘로 되질 않습니다.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안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조복을 받아라, 조복을 받아라" 이런 뜻을 갖느냐 하면 이 몸속에 있는 모습들도 모두 과거로부터 인연에 따라서 다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에 따라서 같이 사는데, 공생으로 사는데 그거를 공생으로 산다는 생각도 없고, 또는 둘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 또 더불어 같이 먹으니깐 내가 먹는다는 생각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산다는 생각도 없고, 그 한마디에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로서 수없는 그 가지가지마다 아마 거기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는가. 잘나도 한 철 살고 못나도 한 철 사는데 한 철 살면서 내가 산 대로 그 모습도 또 차원도 삶도 모두가, 또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차원이 벌어져요. 쭉 연 걸리듯. 하나 생각 잘못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잘못돼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고 단추를 그냥 여기까지 끼웠어도 잘못 끼웠으면 다시 다 빼서 다 다시 끼워야죠. 어떤 때는 '세상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지금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저렇게들 들서거리고 사는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는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세세생생에 자기의 근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너지도 자기가 맘대로 자유껏 쓰는 게 아니라 매여서 삽니다. 하나 매여서 사니깐 줄줄이 내려가면서 끝까지 매여서 사는 거죠. 하나의 보는 걸 잘못 봐서 생각도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고 또는 행동도 잘못하고 생활도 잘못하고 모든 정진도 잘못하고 의식도 잘못되고, 정말 한마음 가운데다 한마음을 되놓듯이 그렇게 되놓아야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산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즉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식들이 조르르 앉았든 뭐가 앉았든, 자기가 못해 놓고 가든 잘해 놓고 가든 하여튼 죽을 때 가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일단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식화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되죠. 그거를 다 버리고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뭐 남는 게 있다고 버리질 못하겠습니까. 인연도 말입니다, 인연을 모두 짚체같이 짚

☞ 22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인연 따라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 에누리가 하나도 없다, 자기가 한 대로지

☞ 21면에서 계속

단 모이듯이 모여서 한 식구라고 살았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자기가 살던 일생을 다 그냥, 자기가 하던 거를 다 놓아 버리고, 자기 몸도 다 버리고 그렇게 스러지는 마당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한 까닭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삶에 대한 차원도 모습도 인연 인과도 전부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 속에 다 지니고 나오는 거죠. 이 말을 되하고 되하고 이러는 것은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지 허탕허탕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밥이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뜸을 안 들이고 그냥 푸면은 밥이 설죠. 그와 같이 우리가 뜸을 들일 만큼 들여야만이 밥이 제대로 돼서 맛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뜨내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한 번 보는 데 생각이 동시에 거기서 벌어지는 거니까요. 생각이 잘못됨으로써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바로 말도 잘못하게 되고, 바로 생활도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잘못하게 되고, 의식도 잘못 갖게 되고, 정진도 잘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다 한데 합쳐서, 내가 얘기하죠, 항상. "공생인 줄 알아라. 공심인 줄 알아라. 공체인 줄 알아라. 공용인 줄 알아라. 또 공식으로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요.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보살이죠. 그대로 보살행이며 그대로 보살로서 영원한 거죠. 거기에서 또 보살 중에도 또 보살로 돼 가지고도 그것조차도 놓아 버릴 수 있다면 그때는 그대로 자유권을 갖고 그대로 부처 아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낚시로 살생을 많이 했던 게 걸려요

질문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면 낚시를 하러 가곤 했는데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은 살생을 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될까요?

답변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물에서 노는 거든지 날아다니는 거든지 들에 다니는 거든지, 그런 것이 전부 힘에 따라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올라오면 사람의 고깃덩어리 먹지 않는데 그 대신에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참 묘한 법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말하느냐 하면은 서산 대사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자기 마음이 새 마음으로 들어가서 새가 내려오고 싶으니까 내려왔다 이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영, 영" 해 놓으면 그게 몇이나 됩니까? 그냥 영이죠? 이 모두가 연결돼서 인연 따라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에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지.

살생이라 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관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그냥 살생이 되는 겁니다. 업보가 되고.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 나오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그 한자리에 모든 것을, 나쁜 게 나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좋은 게 나오면 '감사해.' 하는 그것으로 다 그게 업이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또 복수가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깐 복수로 연결이 돼서 끝끝내 10대(代)고 20대고 30대고 그냥 쭉 계속해서 복수를 낳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또 나라에 누가 되게 하고, 자기가 그냥 볼품없이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누가 되게 이름을 손상시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뭔 일이냐 하면 보이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자기를 무시하고 이



이름 없는 그 정에 모두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다 놓고 중심을 잡아라.
물러서지 말고 다 거기다 놓아라.

운전을 하려니까 그거밖엔 못 살아요. 그거밖엔 못 하거든. 그냥 바깥으로, 물질세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 해 버리니까.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자기가 그 에너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에너지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꾼다 하더라도 난 못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야 비구빈천에 돌고 돌면서 찰나찰나 변함이 오고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나투는 거 아세요? 나투는 거는 표현을 할 때, 즉 말하자면 한 발짝 떼 놓고 나면 한 발짝 없어지는 거예요. 찰나찰나 나툰다.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매사 게 다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바로 그것이 부처가 가능하다. 99% 가능하다. 그런데 무명이라고 그랬죠? 나무에 흙 덮인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본다.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게 보이진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과학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해서 내나 또는 농사를 지어서 먹으나 또는 할 줄 아는 거를 하는 거나, 전부가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좀 더 어려운 건 '요렇게 잘해야지'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게. 어디 과학이 따로 있나요? 심성 없이 어떻게 과학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리를 아는 분들은 그저 저절로 자기 아닌 자기가 물질적인 자기를, 일로 간다면 일로, 일로 가다가 잘못 낭떠러지가 나온다 이러면 낭떠러지 없는 데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켜 주고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 내는 대로예요.

어떤 집은 '주인공, 나는 지금 급해서 집을 그냥 두고 나가는데 집에 도둑 안 들어오게 지켜 줘.' 하고선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문은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더랍니다,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그 모두가 보이지 않는 데에…,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몽둥이를 들고 철퇴를 들고 '너 죽여 버린다!' 하고 와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놓고 거기서 지키게,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지키게 하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걸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항상 둘이 아니니깐 말입니다.

색경에 비치는 것도 내 그림자, 여기서 그 색경을 보고 내 모습을 비치게 하는 놈도 그 놈이고 그런데, 이놈이 하자는 대로 색경 속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자기가 안 보이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근데 악이냐 선이냐, 잘못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운전하는 걸 알아야 된단 얘깁니다. 어느 누구가 잘못 살려고 하고 그럽니까, 잘못하려고 하고. 모두들 번연히 알면서도 잘못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가, 수없는 갖은 각색의 업보가 다 있건만 그거를 없애는 도리가, 바로 그것이 정수에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도 붙지 않는다. 살생도 붙지 않고 모든 게 다 붙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어, 앞으로 내 죄가 많은데 어쩌랴.' 하지마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분들하고 기복으로 그냥 하는 분들하곤 다릅니다. 기복으로는 형상이나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하고 믿고 다니지만, 그리고 거기다 살려 달라고 빌고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도깨비장난밖에 안 되느니라." 양 무제더러도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저 인으로, '웃을 땐 웃고 웃지 않을 땐 웃지 않으면서도 인으로다가 다루고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바로, 나는 찾았는데 모두를 다 귀합을 시키지 못할 때는 그때는 대승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한 마음을 말입니다, 관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좇아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자기를 좇아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죽은 세상에 가니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진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죽은 세상에는 가 볼 수가 없죠. 죽어야 가 보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내가 곧장 그냥 길을 가야지, 그게 도의 길이건만, 가다가도 얼뜻 쉬고선 여기서 참견하느라고 산란케 굴거든요. 그러면 점점,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것은 귀합을 시킬 수가 없죠.

그 귀합이라는 것도 본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진리가 그러하단 얘깁니다. 공생이며, 이 몸속에 있는 것도 공생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한 개체가 그냥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생각에 모두가 이렇게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관습에 의해서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그냥 다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모든 살생도 모든 잘못됨도 다 붙지 않습니다.

위패를 봉안해 놓지 않는 이유

질문 다른 절에서는 49재 동안 위패를 봉안해 놓는데 선원에서는 그때그때 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가 항상 '위패를 정해 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자유스럽게 사는 것과, 죽은 사람도 체가 없이 사는 도리를 알게끔 된다면, 관습과 습이 없어진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패를 정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천리만리라도 손가락 하나만 끄덕하면 다 모이는데 왜 그것을 거기다 묶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스님네들한테도 지장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물론이고,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런 것만 알면 연방 찰나찰나 이렇게 영령들이, 이렇게 조상님들이 댁에 들었다가도 그 도리를, 댁의 마음을 읽어 보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 보시는데 마음이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접해서 집착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위패는 당일 해서 당일 소하고 또 고다음에 할 때 또 위패를 새로 해서 또 당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 살거나 부모들이 바깥에 살거나 이럴 때 부모를 모셔왔으면 잘해 드리고 노비 드려서 잘 모셔다 드리는 게 자유 아닙니까. 또 부모가 찾아와서 저거 하면 노비를 줘서 잘 먹여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그 자유를 갖다 강타하고 그냥 매어 놓는다면 그 뒤 문제는 어떻게 하리까?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봤는데…

질문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저의 집 보살이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봤는데 그 사업을 더 하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불안해하면서 저를 말리는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좋을는지요.

답변 그거는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마음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보살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면 그냥 하는 척하면서 그냥 모든 걸 놓고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글로 가느냐, 이걸 올바르게 이렇게 믿는냐 이러고 하는 것도 댁의 마음에 들어 있어요.

모든 게 자유예요. 자유롭게 살자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렸어요. 그 마음에 달렸다는 그 문제가 그렇게 무섭고 너무나 커서 태산 같다고 했습니다. 한 생각이 태산을 버리느냐, 한 생각이 태산을 만드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깐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그 사주 보시는 것도 그 한마음 거기다 놓으시고 모든 거를 다, 생활할 때 모든 거, 풍기는 거 모든 거를 거기다가 관하시고 그렇게 그냥 편리하게 사신다면 차차 나아지시겠죠.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은 '필수'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배제 '논란'
조계종 지도부 일제히 설치 촉구해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 '세계 寶庫'
세계유산 · 기록유산 동시 보유 유일
생태 · 전통문화 어우러진 민족 성지

文정부, '문화강국 건립' 의지 있다면
해인사역 설립 설치 미뤄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12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김천-거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고시하였는데, 해인사역(합천군 야로면 일대)이 배제되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총무원장,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 해인사 주지가 공동으로 정부당국에 해인사역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해인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문화유산을 함께 보유한 팔만대장경 경전판전과 팔만대장경 경판 및 재경판(해인사 제조경판)이 있다. 팔만대장경과 경전판전은 최고의 불교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서관이다. 최고 문화재 브랜드 가치를 지닌 명찰로 참배객이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일본은 수없이 대장경의 인쇄본을 요구했고, 호시탐탐 대장경판을 침탈하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수탈해가려는 음모를 해인사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다. 1999년, 오부지 게이조 일본총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부러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참배하며 대장경판을 손으로 만지며 경탄했다.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팔만대장경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관광이 대세이다. 여행은 시간이 돈이다. 나라마다 관광명소를 개발하여 여행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하의 명승지요, 인류의 보배가 있는 가야산 해인사를 철도노선이 옆에서 지나가면서도 역사(驛舍) 하나를 만들지 않는다니 정부 정책자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무지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국보 1호를 재지정(가정)할 때 후보로 뽑힌 세 가지 문화재가 팔만대장경, 석굴암, 훈민정음이다. 해인사는 우리나라에서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야산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승)와 가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주변에 100여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성지이다. 임진왜란의 호국대성사인 사명대사가 만년에 해인사 홍제암에서 주석하다가 입적했다.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요, 책의 나라이다. 목판인쇄술과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다. 세계기록문화유산 보유국 가운데 3위인 나라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결정체이다. 팔만대장경은 세계를 제패한 최강국 몽골제국이 고려를 7차례 침략하였는데,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가호와 공덕으로 몽고의 침입을 물리친 호국불교의 역사적 산물이다.

'직지의 도시' 청주는 현재 프랑스에 있는 '직지'를 도시의 브랜드로 삼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든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문화와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경상남도나 합천군은 위대한 팔만대장경을 제조하고 보관한 지역이다. 진주목 남해현에 분사대장도감을 설치해 몽고와의 전란 중에 직접 대장경판을 제작을 관리하고 판각하였다. 총책임자가 최씨 정권의 최우(진주가 진양후 최충헌의 식읍지)이고, 그의 장인인 진주(진양) 정씨 정안이 재정적인 책임자였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최고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역의 설치를 통한 문화국가의 기틀을 정책해 볼 일이다.

社 說

6천여 비구니 요구, 귀기울여야

전국비구니회가 올해 수립한 사업계획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복지와 포교, 교육 확대를 위한 방안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실현 가능성 여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올해 비구니회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국비구니회의 올해 사업계획은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구니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전국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실상 분야별 인식 및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형태였다. 설문에 주관식 문항을 포함해 개개인의 의견까지 면밀히 살폈다는 점도 독특하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인 조사결과는 통계수치보다 '의견'으로 분류됐다.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부 소임자 모두에게 공유됐고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됐다.

비구니스님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노후복지와 요양복지 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가공동체'에 대한 높은 관심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비구니회가 주력해 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지리적 요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역 스님들의 아쉬움도 설문을 통해 드러났다.

전국비구니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집행부 차원에서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사업별 실행부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해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전국비구니회의 묵묵한 행보에 신뢰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내장사 방화, 재발방지 대책 필요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보전이 화재로 소실된 사건은 불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화재의 원인이 방화이며, 사찰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스님이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조계종과 교구본사 선운사가 거듭 참회하며 참담해 하는 이유다. 예비승려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충격은 여전하다. 출가해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본존불이 봉안된 법당에 불을 지른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다만 화재 직후 언론보도를 통해 방화의 원인이 '사찰 내부 갈등'으로 비춰진 대목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툼이나 갈등은 일체 없었다"는 대중 스님들의 증언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이미 보도된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내장사와 스님, 나아가 불교계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은 안카깝다. 심지어 '다른 스님들과의 다툼 끝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사람의 예측하지 못한 돌발행동이 불교계 전반의 내부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조계종과 선운사는 방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방화범에 대한 징계는 물론, 수습과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충격을 떨치고 수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으로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묵묵하고 진실된 복구활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까지 아픈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첫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는 건 자연의 법칙과 조화가 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태양, 공기, 흙, 물이라는 대자연의 은혜를 무한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이 가지는 무한한 생명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된 무한 생명력을 믿고 따른다면 극심한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한 힘을 믿어야 합니다.

잠재된 무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어두운 마음에서 발병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생각이 병을 만들고 키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늙거나 병들었거나 불운이 닥칠 때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내면에서 서로 분열하고 맞서 싸운다. 때로는 육체가 지배하고 싶어 하며, 때로는 영혼이 반란의 깃발을 올리고 도망치려 한다. 그리고 이성은 무감각하게 물러서서 붕괴의 과정을 지켜보고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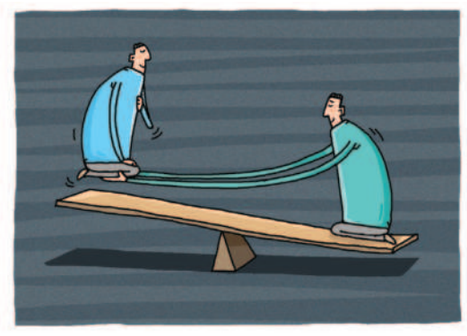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몸에 병이 없고, 일이 잘 풀릴 때면 몸과 마음이 잘 협업을 합니다. 하지만 몸도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협업은 깨어지고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영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좋지만 어둡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병이 들 수 있지만 마음까지도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보면 말기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은 결코 병들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무한하고도 강인한 자신의 생명력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이끌려가는 삶은 육체가 병들면 마음마저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면에 깃든 무한한 잠재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처럼 '나'란 존재를 두고 때로는 육체가 지배하고 싶어 하며, 때로는 영혼이 반란의 깃발을 올리고 도망치려 합니다.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아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불국사
• 주 지 : 단하 (속명 : 함인숙)
• 주 소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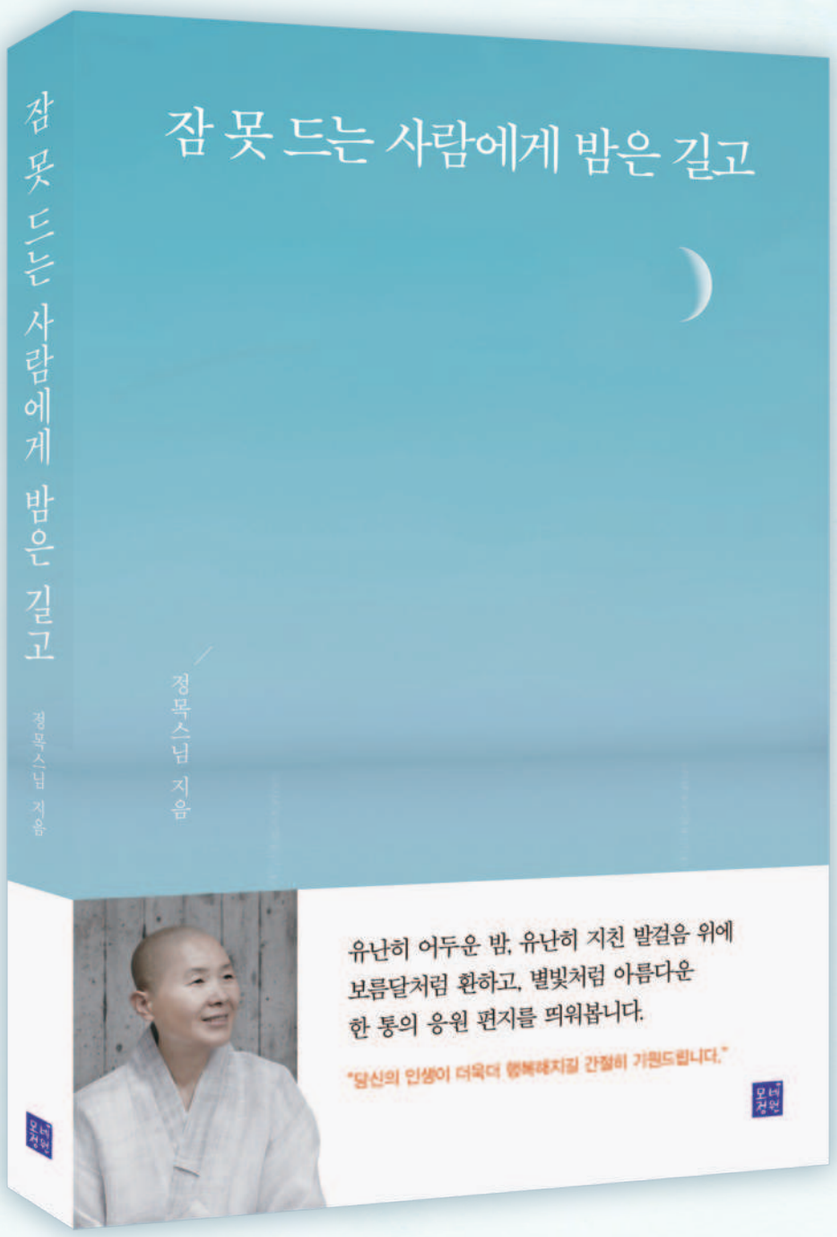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를 쳐보세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베스트 셀러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 ⇨ **12,600원** (배송비 별도)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모네정원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